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혜 진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생태환경 소리조형’ 수업 연구

-청각과 시각미술 융합을 중심으로-

201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전공

김 지 윤

# ‘생태환경 소리조형’연계적 수업 연구

-청각과 시각미술 융합을 중심으로-

이 혜 진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전공

김 지 윤

# 인 준 서

김지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 논문개요

사회에 적응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이 실시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또다시 학원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내용은 ‘보다 근본적인 힘과 동기’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학생들을 경쟁의 다른 일면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러한 현재 교육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미술교육만의 특성을 살려 교육의 소재와 구성을 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을 돕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이 된다. 인격적 측면에서 교육은 담당 교사만의 특유의 스타일과 미성숙한 학생의 만남을 통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예술적인 대화와 언어, 비언어적인 인격교류를 통하여 교육의 전 과정 중에 형성된다. 효율적인 인격교육을 위하여서는 교사가 학생의 인격에 대한 구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반적인 수업 중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제외한 가시적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제외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청각수업과 생태환경 시각적 수업의 융합을 통하여 생태환경 소리조형 수업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융합적인 수업을 통하여 현행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미술문화를 생태환경미술과 청각미술, 생태환경 소리조형으로 나누어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3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수업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각미술, 시각미술을 융합하여 생태환경 소리조형이라는 새로운 단원을 만들고 각각 2회의 수업을 계획하였다. 4장

에서는 전반적인 논문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 수업을 계획하기 위한  
사전설문조사자료를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b>1</b>
1. 문제 제기 .....	5
2. 연구 목적 .....	7
3. 연구 내용 .....	9
<b>II. 이론적 배경</b> .....	<b>11</b>
1. 미술문화 .....	12
1) 생태환경 .....	12
2) 청각 .....	20
3) 생태환경 소리조형 .....	23
2. 교과과정 구성 및 방향 .....	26
1) 2015 교과과정 .....	26
2) 2009, 2015 교과서 분석 .....	29
3.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 .....	35
<b>III. 융합수업으로서 생태환경 소리조형 프로그램</b> .....	<b>43</b>
1. 프로그램 개발 .....	43
1) 생태환경 .....	43
2) 청각 .....	52
3) 생태환경 소리조형 .....	61
2. 기대효과 .....	78

IV. 결론 .....7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2009 개정 교과서 생태환경 미술 분석 .....	30
(표 2) 2015 개정 교과서 생태환경 미술 분석 .....	32
(표 3) 2009 개정 교과서 청각미술 단원분석 .....	34
(표 4) 2015 개정 교과서 청각미술 단원분석 .....	34
(표 5) 실생활에 활용되는 친환경적 조형 수업 .....	46
(표 6) 환경적 자화상 그리기 수업 .....	50
(표 7) 남중문인화와 감성발라드 상관관계 수업 .....	52
(표 8) 코고는 소리 녹음하기수업 .....	55
(표 9) 다양한 재료로 악기 만들기 수업 .....	59
(표 10) 생태적 소음의 시각적 생태조형과의 접목 수업 .....	62
(표 11) 활동지 .....	64
(표 12) 소리 환경 접목 수업 .....	64

## 도 판 목 차

(도 1) 크리스토 잔 클로드 1 .....	18
(도 2) 크리스토 잔 클로드 2 .....	18
(도 3) 정만영(2014)_순환하는 소리 .....	21
(도 4) 자연적 책 만들기 영상 .....	49
(도 5)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자화상 1> .....	51
(도 6)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자화상 2> .....	51
(도 7)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자화상 3> .....	51
(도 8) 조라오포크 1 .....	51
(도 9) 조라오포크 2 .....	51
(도 10) 가창법 비교 .....	54
(도 11) 남종화 수업 학생작 .....	55
(도 12) <코고는 소리를 내는 악기 제작 사례> .....	56
(도 13) (이학승.2008)- 음과 신체와의 관련성을 탐구한 드로잉 .....	56
(도 14) (이학승.2008)- 소리_효능_드로잉 .....	59
(도 15) 성신여대 대학원 예시작 1 .....	61
(도 16) 성신여대 대학원 예시작 2 .....	61
(도 17) 채소로 만든 악기 1 .....	61
(도 18) 채소로 만든 악기 2 .....	61
(도 19) 자연의 소리를 그래프로 분석한 모습 .....	62
(도 20) 사운드 스케이프 영상 자료 .....	63
(도 21)(도 22) 뉴욕 보테니컬 가든 .....	63
(도 23)(도 24) 비오는 날 비오는 소리 .....	67
(도 25) 화장실 자연의 소리 .....	67

## I. 서론

자연은 언제나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장 자크 루소-

아이들은 자연에서 커야한다. 자연으로써 순수한 감수성을 알며, 위기에 적응하는 법을 스스로 관찰하며 배운다. 자연을 관찰하고 쉽게 먼저 나서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쟁취한다. 사람들의 입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자연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부모는 단지 안목을 가지고 그 아이의 환경을 조금 바꿔줄 뿐이다.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불평등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길러낸다. 자연적인 교육방식은 언제나 상상만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한다. 자연 속에서의 교육은 긍정적인 정신과 함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자연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은 학생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교육적 상상력을 불러올 수 있다. 자연은 도처에 있으며 태초로부터의 에너지와 함께 든든한 자신감을 주는 공간이다. 감수성과 더불어 인간적인 풍요로움도 느낄 수 있다. 자연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인지가 펼쳐지기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불가능 할 것만 같은 황무지에서 자연은 놀랍도록 인간에게 자원을 제공한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질문하는 고갱의 그림처럼 인간은 태초에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대를 이어왔는지 다 알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기적적이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를 창조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바라고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연 속에서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자연에서 배우고 상황을 타하지 않을 수 있다. 자연은 축복과 생명이다. 자연은 태초 이후

로 생겨나고 모든 먹을 것과 볼거리를 제공했던 처음 창조의 재료다.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편리를 제공하기 이전부터 자연은 사람들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제공했다. 놀랍도록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학생들이 자연을 공부하는 것은 문명 이전의 시대를 돌아봄으로써 감각을 깨울 수 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룬 점을 되돌아보며 자신감과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도록 할 수 있다. 자연을 보호하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아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보지 못하는 자연의 힘을 깨닫도록 한다.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필자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의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사고의 전환이었다. 고등학생 때에는 대학입학시험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경쟁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경쟁의 아픔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쟁심리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을 끌어올리지만 이러한 선의의 경쟁은 결국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았다. 지나친 과열경쟁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였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족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시험 성적 또한 과열된 긴장 때문에 잘 받지 못하였다. 시험을 너무 큰 적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오랜 시간동안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온 줄 세우기식 평가방식과 가정과 친척문화에서부터 뿌리 깊게 상처가 되어 온 비교의식은 별다른 성찰이나, 목적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다. 경쟁 없이는 성장이 힘들다는 두려움은 사회를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절대적인 경쟁시대로 몰아넣는다. 그러면서도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적으로 몰아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사실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했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은 자연이 자라나는 모습에 빗대어 말 할 수 있다. 자연은 자신이 가진 토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자란다. 끝까지 빛을 찾고 본래 씨앗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을 완성시킨다. 꽃은 꽃대로 풀을 풀

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조화롭게 자란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듯 빛을 향해 자라나기는 하지만 자연의 절대적인 원동력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력에 있다. 세상이 처음 생겨나고 자연이 생성되는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위대한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다른 생물을 모방하거나 부끄러워 함 없이 당당하게 생명을 드러내었을 것이다. 종류대로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다른 존재를 닮아 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생명을 발산했을 것이다. 무한 경쟁으로 병들어 있는 사회를 위하여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연적인 순리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써 인성교육을 하기 위하여 남과의 비교의식을 가르치기 보다는 자연적인 순리를 가르쳐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을 보고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자신보다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타인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꾸밈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신의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태초부터 있었던 강인한 생명력의 근본을 깨우치도록 하며, 삶에서의 강인한 힘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많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다. 꿈이 무엇인냐고 물어보는 사회에 있다. 사실 꿈은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과 부모들은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더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꿈을 가지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꿈은 자신 속에서의 생명력과 자신감, 자신에 대한 통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들의 꿈에 대한 인식 수준은 국민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꿈’이 학생의 공감능력을 마비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남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꿈’은 꿈 이외의 것을 모두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든다. 과도한 꿈에 대한 집착은 ‘꿈’과 ‘직업’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한다. 단순히 ‘안정적인 직

장'을 위하여,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학생일수록 '안정적'이고 '원하는 것'에 대한 '결핍상태'를 학습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교육과정에서 '꿈'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꿈'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서로를 경쟁자로 확정하고 바라보는 시선과 올바른 꿈에 대한 정의를 갖지 못하여 '꿈을 가지라'는 강요에 부딪히고 방황하는 학생들, 그리고 꿈을 가졌지만 인생의 의미 없이 꿈에 매달리는 수동적인 학생들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가 된다. 자연 속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는 자연의 성장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문제해결력을 가지도록 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풍요로움을 알고, 자신과 타인의 가능성이 풍부함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풍요로운 인격으로 대하기가 수월하다. 누군가와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는 '각박한 가상현실'에서 벗어나서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의 '풍요로운 현실'에 사고의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고 훈련한다면 황무지에서 푸른 풀을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나무들과 같이 마음이 풍요롭고 가능성을 가진 인재로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꿈을 찾는 자유학기제'에서 진정한 꿈을 발견하도록 하고 인격과 자신감을 함양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에게 보다 더 나은 발전의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책임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을 관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시하고, 학생은 단지 교사에게 어떤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구하면서 외부의 사교육보다 더 나은 참된 지적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인재는 미술교과에서 자연적 교육방식을 택하고 자연에 적응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학교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것을 수업 시수 내에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

성할 수 있고, 피상적인 학습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체험 중심적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미술경험을 할 수 있다. 오감의 자극을 통해 감각을 깨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각각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듯 하늘로 솟구쳐 자라나는 풍성한 자연과 같이 다양함을 인정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자라나는 자연과 같은 학생들을 소망하며 본 논문이 미래 인재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1. 문제제기

학교현장에서 자유학기제, 블록타임제 등으로 수업시수가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시험을 보지 않는 미술교과의 특성상 교과 수업에서 방법상의 다양한 시도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적절한 수업 안이 없으므로 인하여 이러한 교육적 상황을 활용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업상황으로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수업들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돕기에 미흡하다. 미술수업은 교수법에서부터 내용까지 창의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수업상황은 교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미술교과에서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상황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상황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수준에서 필요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충돌 없이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시대에 맞는 수업의 안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자발적인 흥미를 줄 수 있는 수업, 학생 자신의 내적 동기를 알도록 하고 자신을 깨닫도록 하는 수업, 남을 탓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펼쳐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감상·표현, 학습 지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방대한 수업의 주제를 압축함으로써 발달된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활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인간의 발달에 교사와 교육이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양상은 일괄적이기 보다는 다차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한정된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적절한 발달을 촉진하고 확실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인격적 측면은 다양한 영역들이 함께 작용하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므로 현재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교과과정에 비추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인 자극을 주고 협동학습을 자연스럽게 유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고등사고력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융합교육주제 내에서 지식, 사회, 경제의 다양한 영역의 복합적인 사고력 향상을 통하여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력의 배양은 단지 내용을 가르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생각'하는 능력의 장을 제공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 능력의 장을 열어 주기 위하여서는 가공된 자료에 따른 입력, 인출 식의 반복학습적인 수업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은 풍부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자료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고려한 미술교육 교육과정 전반에서 기대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태환경미술'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현대미술의 통합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청각과 시각미술을 융합하여 심도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각각 흩어져 있는 생태환경적 시각, 청각, 소리 조형 의 분야를 생태환경 소리조형의 하나의 주제로 단원화 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고등사고를 활용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 넷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되는 시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과 함께 교사들이 타 교과와의 융합수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업내용이 한정되고 수업 시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 바뀐 수업시수에 적응하고 '미래인재'상에 적합한 수업내용과 교사의 수업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목적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인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정중심 평가, 참교육의 배움 중심 평가, 협동학습, 체험학습, 프로젝트 학습법 등을 인성교육에 적합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에서도 많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업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업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주어진 수업시수와 여러한정적인 상황 내에서 도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착한’인재, ‘인사를 잘하는’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성은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교육을 통하여 촉발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성은 관찰 될 수 있는 행동적 측면의 학습으로 볼 수 없으며, 심연의 아름다운 취향과 인간간의 긍정적인 관계능력,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독서 감상을 통한 감수성 함양을 넘어서 완전한 사고를 통한 긍정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내면의 자신감은 자연을 통한 강인한 생명력과 생존의식을 배움으로써 많은 부분 채워질 수 있다. 자연과 자신의 다양한 관계를 탐구하고 자연이 주는 휴식과 아름다운 시각적 즐거움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잠시 한발 물러나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여유를 준다. 자연에 몰입하고 취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생동하게 하고 마음속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동요하도록 한다. 또한 생태환경을 활용한 미적 감수성 역량 강화는 포스트모더니즘 교육환경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지, 정의, 심동 영역의 통합교육을 무리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탐험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생들 스스로가 느낀 것을 더욱 자유롭고 아름답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대예술

작업은 개인과 일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점차 작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취하게 되면서, 현대적 ‘미니멀’에 대한 관점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를 반영하며 미래 사회에 대하여 시각정보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적이고 세련된 감각은 대중과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으로 갈망하는 평안을 보여주기 위하여 현대 예술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과 시각적 실험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지 못한 사고가 만연해 질수록 나타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사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동요는 대중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지에 대한 숫자적인 사고 판단은 개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재 속에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집단 성향은 서로를 경쟁자로서 확정한 시선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집단의 부정적 측면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집단은 집단적 행동을 무시하는 개인에 대하여 가차 없는 처벌과 이데올로기의 폭력을 행사한다. 현대에서 집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이기주의를 나타내기에 더욱 편리하도록 이루어 졌다. 뿌리부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시대로 인하여 겉모습만 집단일 뿐인 집단 이기주의의 사회가 되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사회에서 개인은 서로간의 대화의 단절을 겪으며 진정성 있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존재한다. 정답이라는 강력한 분할의 체계는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문화 내에서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개인들은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게 되어 심각한 자기 파괴의 길로 접어들게 되기도 한다. 언어는 실체에 대한 정밀한 관찰능력을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한계가 있다. 개인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능력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표현능력의 간극은 질문의 부재에서 생겨난다. 정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정서적인 마

비는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실상 정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현실세계에서 교과서의 실사성과 구속성의 원칙에 따라 단순 명료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교과서를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학습된 거절감과 내면적 자신감의 결여는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적인 미성숙 상태로 사람의 도전을 좌절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전정신이 결여된 학생들은 정신적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가 내려야 할 판단을 다수결의 의견에 의존함으로써 실제 사물에 대해 관찰 하고 고뇌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감수성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무자비함에서 순수함을 되찾도록 할 수 있다. 정답이 없는 예술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활동을 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서 꼭 필요하게 여겨질 미래 직업의 한 분야인 예술분야의 감수성을 경험 할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과 자연이 주는 풍성하고 청량한 인격을 보고 배우면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민들레 씨앗과 같이 자유롭고 뿌리내리기 어려운 도시의 시멘트 사이에서도 자리내릴 정도로 강인하고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성한 자연에 대한 교육의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목표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환경미술에 중점을 두고 전인교육을 통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둘째, 현대미술의 통합적인 성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셋째, 인지, 정의, 심동의 영역을 통합적 단원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넷째, 수업 시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을 관찰 하고 고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활동을 통하여 지력개발을 하기 위함이다.

### 3) 연구내용

본 논문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철학과

미술문화이론을 바탕으로 생태환경 소리조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생태환경을 시각과 청각의 분야로 나누어 수업을 설계 하였으며, 이를 융합하여 생태환경 소리조형이라는 새로운 단원을 제안하였다. 시각은 생태환경미술을 기본으로 하여 생태미술의 배경과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청각은 ‘사운드 스퀘이프’의 개념을 주로 조사하였다. 각각 현재 2015 개정 이전 교과서와 이후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한계점과 개선점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각과 청각을 융합한 <생태환경 소리조형>을 제안하였다. ‘생태’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능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예상해 보았다. 또한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계획과 ‘예시작’으로 수업에 대한 결과물을 예상해 보았다

## Ⅱ. 이론적 배경

4차 산업 시대가 도래 하면서 미래 사회의 인재는 알고리즘 속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창의 융합능력은 교사의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발문, 학생들을 존중하는 분위기, 단순 교실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실외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학교교육의 미래교육 핵심역량 중 심미적 감수성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 지식정보 처리역량, 창의 융합능력과 더불어 미래에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새 시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뒷받침한다. 현대사회의 지식의 폭발은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의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고 새롭게 해석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 된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에서 활용되는 ‘시각적 문해력’교육은 본 논문에서 ‘생태적 문해력’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해력’이란 ‘읽는 능력’이다. 생태를 읽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생태계의 주요 개념 지식,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세계의 역동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생태계의 운영 원리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사회정치학적 지식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와 환경적 가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태적 의견을 가진 인간의 문화 활동의 환경에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로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이해능력을 가진다. 태도 측면에서 자연을 도구로써 파악하기 보다는 있는 그 자체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태도, 자연을 신성시 하고 자연의 생명력, 창조력을 익히는 태도 등을 가진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진다. 기능측면에서 환경문제나 쟁점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개인적 가치에 기초하여 선택한 문제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가진다. 행동측면에서 생태학적 작품들과 사상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례 깊고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단순한 생태에 대한 지식이 아닌, 생태에 대한 문해력을 익히는 능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복합적 고등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생태소양과 구분하여 환경적 소양은 단순히 생태적 읽고 해석하는 지적 능력보다는 정의적인 측면에 보다 관련이 있는 능력이다. 환경적 행동 측면에서 건전한 환경적 결정을 하고 환경책무성을 가지는 면에서 ‘생태’와 ‘환경’의 용어는 구분할 수 있다. ‘환경소양’으로 제시하고 있는 범주 중에서 정서적 측면은 개인수준에서 환경의 문제와 쟁점을 인식하고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생태소양’은, 자연계와 사회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사회, 정치적 제도와 관련하여 인간의 문화 활동이 환경에 미친 영향과 시민참여에 대한 지적의식을 포함한다. 또한 환경 쟁점에 대하여 알고, 이에 대한 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행동계획에 반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능동적이며 신중하게 참여하는 태도를 포함한다(장정윤, 2014).

## 1. 미술문화

### 1) 생태환경

20세기의 서구 문화는 자연의 정복과 개발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훼손 했다. 후기 산업사회의 개발 논리에 앞선 자연 파괴 현상이 아무런 저항 없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예술가들에게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주제는 미술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술가들은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적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미술은 자연과 문화 사이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기존의 환경파괴적인 미술과는 달리 환경과 공생하는 예술로, 예술가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 미술은 산업사회의 소비 지향적 가치를 거부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전개되었

다. 이들의 시도는 미술의 상업화에 반발하고 대중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환경의 보호를 위한 예술은 다각면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도시와 미술관의 공간보다 가능한 멀리 떨어진 자연적 공간에서 작업하기를 선호한다. 자연친화적 작가들은 작가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연과 동화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2002, 배강조). 생태 환경미술이 대두되기 이전, 기존의 대지미술은 미술의 상업화에 대한 반대와 환경운동에 대한 소극적 지지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성행했던 대지미술은 스미드슨이 전람회 이름으로 사용하였고 일반화 되었다. 대지미술은 대지를 활용한 예술의 개념으로서 생태를 기초로 하는 환경미술과는 차이가 있다. 홀트는 스톤헨지를 연상시키는 구조물을 세웠다. 하이저와 스미슨은 고대의 무덤봉분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조각을 창조해 내기 위해, 미국 서부의 사막에서 수 톤에 이르는 흙과 바위를 퍼냈다. 룡은 사진 속에 그가 돌아다닌 자연풍경과 도중에 그가 일시적으로 재배치한 바위와 꽃을 아름답게 담았다. 위치를 바꿈으로써 대상을 보는 사람과 주변 공간과의 관계에 변화를 주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시각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생태환경에 대한 측면 보다는 미니멀리즘에서 나타나는 연극성과 관계성 개념에 치중하였다. 해프닝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했다(세계미술용어사전 p86). 환경생태 미술은 다다이즘, 개념미술의 경향을 반영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하여 전 국가적인 정신적인 갈등 속에서 탄생한 예술가들의 다다이즘은 인류의 실존주의적, 니체의 허무주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 정신적인 고갈로 인하여 많은 젊은 미술가들은 반물질적인 태도로 작품을 만들었다. 작가의 손재주가 생략되고 단순히 산업적 물질을 그대로 놓거나 붙이는 작업은 이후 환경미술에서 자연적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형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복잡한 형태가 허물어지는 것은 미니멀 아트에서 볼 수 있다. 미술작품 자체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새로운 바람이 곧 개념미술이다. 물질적 대상에서 심리적 이미지로 옮기려는 경향이다. 내용은 보통 사진이나 문서, 상투적 문구 또는 일상적인 산문, 작가들의 공식적인 서명을 수단으로 하여 형성되기도 했

다. 개념미술의 대표적 작가인 조셉 코수스는 사전의 낱말풀이를 그대로 신문에 실어 작품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개념미술은 상품성을 거부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곧 수집가·미술가 및 전통적인 미술작품에 적용하는 모든 가치기준을 거부한다. 사물 자체를 작품으로 허용하는 것은 환경미술에서 활용하는 자연생태 또한 그대로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예술작품에 대한 기준의 폭을 넓혀 주었다. 따라서 작품은 조형물의 결과에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미술가의 관념에서 우리나라 가치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감상자는 단순한 마띠에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또는 작품의 흔적을 대하면서 거기에서 작가가 추구한 과정 또는 관념을 찾아야 한다(두산백과). 이러한 개념은 신체미술, 대지미술, 퍼포먼스와 관련이 있다. 특히 언어적이고 철학적인 특징을 보인다. 완성품의 추구, 결과의 추구에서 미완성 허용 과정지향성, 작품 창작과 제작에서 사고형식으로, 기존의 미술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반미술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다. 개념미술은 언어의 풀라주나 언어의 오브제화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반 예술적 태도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 왔다.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제작의사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적 태도의 변화는 미래주의에 영향을 받은 뒤샹의 다다이즘, 마그리뜨의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개념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다다와 초현실주의이후 수많은 작가들이 실험을 거듭했다. 제스퍼 존스는 네오다다의 대표적 작가로서 다다를 변형시킨 새로운 다다의 출현을 선보이며 재현오브제를 제시했다. 유럽에서는 신사실주의가 등장하여 이브 클랭의 색 제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미니멀리즘으로 종결되었다. 미니멀리즘은 개념예술과 합쳐져 솔 르윗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개념미술의 과정미술의 ‘반 형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부드러운 물체의 ‘비결정성’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1950 추상미술 이후에 1960 미니멀아트가 등장했다. 벽 없는 미술관으로 대변되는 미니멀리즘미술의 전시는 미니멀아트로 설명할 수 있다. 미니멀아트에서는 최소한의 조형 수단

을 사용하여 극도의 몰개성을 지향한다. 에이비시아트, 리터럴아트, 차가운 미술, 환원적 미술, 오브제 아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등으로 불리며 최소한 극소의 미술이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절제된 양식과 극도로 단순한 제작방식을 택하여 실존과 본질을 강조하였다. 재현된 형상과 환영적인 회화의 가상공간을 거부하고, 받침대를 배재함으로써 작품을 하나의 오브제로서 현실과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주로 나눌 수 없는 단일한 형태를 특징으로 위계적 질서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외적이고 물성적인 것에 의존하여 의미를 배재하고, 이것을 통한 공적인 장소에서의 경험을 유도하여 연극적 상황으로서 실제 공간속 관람자의 다양한 해석을 부각시킨다. 제작 과정은 공장에서 제작되고 생산되는 방식이다. 그린버그는 이 때문에 미니멀아트를 비예술로 칭하며 비난했다. 멕시코와 일본에는 모노파, 저드, 모리스, 르윗, 플레빈, 스미스, 안드레, 세라, 마틴, 마든이 있었다(세계 미술 용어사전, p153). 개념미술은 1960년대에 상업화되어 가던 미술계와 동시대 미술이었던 미니멀아트로 대표되는 전후 형식주의 미술에 대하여 서로 상충하는 측면을 가지고 등장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이 물성중심 상업적 미술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미술이라는 명칭은 1960년대 반 예술적 이벤트를 시도한 요셉보이스, 백남준, 등의 플럭서스 멤버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개념미술가들은 그때까지의 미술 즉 미니멀리즘이 좁은 범위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한계에서 탈피하기 위해 페미니즘, 대중문화, 기호학 등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미술작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냈다. 개념미술은 근대적 상업적 물질주의 예술관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전자는 유럽에서 후자는 미국 팝아트에서 많이 보인다.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경험 한 후 이성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근대 미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다다가 출현하였는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재평가 되면서 미술에 관념성을 도입한 뒤상 등의 영향과 어우러져 부정적 영향의 기초를 형성했다. 유럽의 부정적 태도의 배후에는 합리적 형이상학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으며 초경험적인 존재에 관계하는 태도에 따라 그 입장이 결정된다. 경

험론에 근거한 실증주의적 영국은 룡, 디베츠, 길버트와 조지 등과 같이 경험에 논리실증적인 언어로의 관심으로서 개념미술을 표방했다. 이는 반 논리 실증주의자에 의해 유럽 미술이 주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칸트적인 미의 형식성이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 독자적으로 해석되어 순수한 형식주의가 미국적인 개념미술의 토대가 되었다(세계 미술 용어사전, p18). 개념미술의 효시가 된 다다이즘의 거장 뒤샹은 미술가의 역할이란 미의 고찰을 위한 선택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념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중시했다. 또한 조셉 코수스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들도 개념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작품에는 레디메이드로서의 의자, 의자의 자료형식, 의자라는 언어가 존재한다. 또한 의자가 미술관의 작품의 자리에 놓인 것은 뒤샹의 변기처럼 ‘개입’의 요소이다. 즉 개념미술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실제 의자사진이나 설명서를 떼면 이런 미술은 하나의 기록으로 남고 우리 기억에서 사라짐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에 대한 소유권, 보존가치, 상품성을 거부했다. 요셉 보이스는 치유와 혁명으로서의 개념미술을 했다. 20세기 가장 전위적인 현대미술 작가로서 퍼포먼스, 개념, 설치와 오브제 등 다방면적으로 활동 하였던 그는 다양성, 사회성, 소통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조각’, ‘예술작품으로서의 사회’를 표현했다. 특정 매체에 집중하며 은유와 알레고리, 예술과 삶,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진취적 모험 등을 실험했다. 플럭서스에서 활약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예술가이며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술의 ‘치유성’을 지향했다.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술로의 치유와 회복표현까지 주장했다. 플럭서스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독일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국제적 전위예술운동이다. 1962년 독일에 결성하여 70년대 초까지 활동한 극단적으로 반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퍼포먼스는 연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해프닝은 무계획으로 진행된다. 기존예술과 문화를 거부한 실험적인 작품을 전개한다. 요셉 보이스의 작품은 ‘일상성과 인터미디어 통합성’경향을 가진다. 예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없애고자 문학과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으로 뚜렷이 구분된 예술 간의 인

습적인 경계를 무너뜨렸다. 서로 다른 매체를 결합시킨 인터미디어 통합양식 개념을 발전시켰다. 플럭서스의 이벤트는 음향효과와 전위음악이 인체 동작과 다양한 ‘비예술적’재료들과 함께 결합되었다. 또한 음악과 무대예술과 같은 시간예술의 특성을 도입하여 예술작품을 더 이상 물적 대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동적인 과정으로 보여준다. 실험성과 다양성 등 통합양식과, 소멸과 불확실성의 과정예술로서 시간성과 심리적 과정을 보여주었다. 반 상업성을 추구하며 작품을 상업화 할 수 없도록 작품에 사인을 하지 않는 등 행위공연을 시도했다. 주요 작가로는 존 케이지, 샬롯 무어 맨<sup>1)</sup>, 백남준, 요셉보이스, 오노요꼬가 있다. 대지미술은 1960년대 유럽에서 개념미술의 한 흐름으로 시작되어 미국으로 전개 되어 성행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반 도시화 주의자들의 사회 환경운동을 일으켰다. 사회 환경운동의 일환인 대지미술은 미니멀리즘의 연극성 개념을 확대시켜 상업성과 물질성을 떠난 기존의 화랑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제작 과정이 사진에 의한 도큐먼트로 남겨지는“탈 물질성”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설치 장소와 스케일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작품이라고 하는 완성된 형태 자체를 불필요하게 되었다. 사진이나 문자, 영상 등에 의한 제작과정중심 개념미술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환경파괴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버트 린튼은 ‘대지미술은 기이한 행위미술’이라고 했다. 대지미술 작업은 필연적으로 그 환경에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미술 행위들의 특징은 비실용성이나 무용성이라기 보다는 명백한 비합리성이다. 또한 어떤 명백한 의미도 없는 일시적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고, 노동, 재료 등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 그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말에서처럼 대지미술은 환경미술에 비하여서 생태를 존중하는 태도보다는 자연을 활용한 미술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 오노요꼬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백남준과 함께 활동했다.



(도 1) 크리스토프와 잔클로드 1-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 2) 크리스토프와 잔클로드 2-나무를 천으로 감싼 모습.<sup>2)</sup>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여러 사회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대지 예술이 발전하고 있던 당시에는 환경 보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발전하던 시기였다. 자연 속에 작품을 만들어 내는 대지 예술가들의 작업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70년 로버트 스미드슨이 밴쿠버 근처의 암석 지역에 제작하려고 계획했던 '깨진 유리섬'은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2톤가량의 유리 조각을 뿌리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이 암석에 등지를 짓고 사는 새들과 바다표범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오염과 환경 규제를 위한 캐나다 사회에 의해 작품의 제작은 중단되었다. 마이클 하이저의 '이중 부정' 또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대량의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비판했다. 마이클 아우핑이라는 비평가는 "아주 적은 예외를 빼고는, 대지 예술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한다."라고 했다(위키백과). 이와 달리 생태환경 자연미술은 물, 빛, 공기, 흙, 나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때로는 재료 자체를 오브제로 해석하기도 한다.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생태를 돕고 발전시키며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디자인에서부터 순수 창작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자연의 예술가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계를 활용하기도 한다. 리처드 롱은 자연에서 걷는 행위를 통해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과 소통하였으며, 자연 속에서 재료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도 했다. 걷는 행위 자체를 도면에 남겨 작품화하기도 했다. 단지 환경을 이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

2) 설치, 사진촬영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주로 사진작업으로 자신의 작업을 남긴다는 점에서 단지 대지미술이 아닌 생태미술가로 볼 수 있다. 생태미술이란 “생태계의 순환과 리듬에 반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미술로 수용하는 예술 활동의 한 분야이다.” 생태미술에서는 자연이 작품의 형식과 내용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자연적 과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순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연 과 미술작품은 서로 혼합되어 구분이 어렵도록 제작되며, 작품은 자연의 일부와 다름없게 된다. 이러한 작업 형식을 활용한 수업은 생태계에 대한 존중의식과 미의식의 유기적 연계로써 통합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이 무한하다. 생태주의 사상의 핵심은 나와 환경 및 세계 전체와의 공존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류 문명적 대안을 모색하고 정신과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한다. 생태미술교육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생명사상에서도 사상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종전의 미술교육이 기술위주의 실기능력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졌다면 생태미술교육은 생명가치를 존중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며 생태적,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등 보다 본질적인 교육 목표를 가진다. 자연 나눔을 활용한 생태미술교육은 지역 환경과 그리고 교과과정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의 생태미술에 대한 열의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미술에서의 자연생태활동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생태미술활동은 신체 리듬활동과 주변의 자연재료 등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 유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감수성 함양하고 지역 생태계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구환경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생태미술활동의 재료는 나뭇잎, 들꽃, 곡식, 나뭇가지, 열매, 돌, 그리고 심지어 눈, 비, 바람 같은 자연 현상들도 소재가 된다. 생태미술교육은 동물, 식물, 자연물, 자연환경 속에서의 여러 현상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이해하는 자연교육 그리고 전인적, 창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 2) 청각미술

‘소리예술’ 또는 ‘오디오아트’라고도 한다. 평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운드 스퀴프처’라고도 한다. 시각예술에 청각을 융합하는 것은 종합예술, 총체예술의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다. 화랑, 미술관, 야외환경, 퍼포먼스 현장 전시되거나 테이프 형식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퍼포먼스 형식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많다. 소리가 퍼포먼스 형식과 자연스럽게 병합된 예는 존 케이지의 음악, 시각미술 및 무대예술 사이의 구별을 없앤 해프닝, 미국 카네기홀에서 진행된 플럭서스의 이벤트적인 속성을 가진 소음 연주회 등이 있다. 그러나 미술계에서 사운드아트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루이지 루솔로 이다. 미래주의의 루솔로는 미래주의 선언문 ‘소음 예술’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미술에 음악을 직접 도입하는 시도를 하였다. 작곡가로도 활동한 루솔로는 악단을 조직하여 파열음, 연속음, 잡음 등의 소음을 발표하였다. 1922년에는 미래주의자들과 상젤리제극장에서 ‘소리예술가들의 밤’을 개최하였다.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미디어아트의 성격을 가지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후 개최한 전시는 다양한 기술적 매체가 동원된 전시회였다. 사운드아트는 다른 많은 개념적 현대예술작품들과 197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브루스 노만, 질 스콧 등 개념미술가들은 사운드아트와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등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 하였다. 1978년 로리앤더슨은 인간의 신체 일부가 소리의 전달매체가 되는 작품<핸드폰 테이블>을 제작했다. 1980년 더글러스 홀리스는 거대한 구조물 <노래하는 다리>를 바람 부는 곳에 설치했다. 1991년 질 스콧은 관객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 소리가 나도록 설치작품에 장치하여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1994년 레바논의 모나 하툼은 비디오를 설치하여 시각적 감상과 함께 예술가의 심장박동과 숨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최종훈, 2008). 정만영의 작품은 관객 참여적인 작품으로 수도꼭지와 수도관을 설치했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소리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감상할 수 있고, 관객이 직접 작동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소리의 울림에 따라서 자연적 환경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도 3) 정만영(2014)\_순환하는 소리-마산 무학산의 물\_수도꼭지, XL파이프3)

<저마다의 장소들은 고유의 소리를 지니고 있으며, 저마다의 소리들은 특정 장소에서 더욱 도드라지거나 왜곡된다. 기후 및 환경, 형태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장소와 소리에겐 역사가 있고, 역사는 장소, 소리와 더불어 이어진다. 우리는 공명하면서 소통한다.(작가노트 중)> 소리예술과 매체미학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자면,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접하는 메시지는 인지 가능한 의미 표현체로서 소리다. 그 소리의 대부분은 자연적인 소리인 비, 바람 소리 등 자연현상의 소리, 동물이 우는 소리, 소음 등이고, 매우 적은 부분은 구두 언어, 악보 등의 인위적인 소리 상징이다. 인간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마감할 때 내는 소리는 느리고 간헐적인 유언이나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소리다. 그리고 한 인생이 마감될 때 우리는 슬픈 곡소리와 흐느낌 소리를 듣는다. 인간이 평생 동안 만들고 듣는 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보다 더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자극한다(한국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2013: 김성재, 2007 재인용). 소리는 본질적인 떨림이다. 시각적 대상은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이지만 소리는 즉시 사라져 버린다. 공기의 진동은 현상이지 실체가 아니다. 단지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 진동을 실제적인 기호로서 인지하는 것이다. 음악은 특히 ‘느낌’의 소리다. 음악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특성이 있다. ‘슬픈 음악’에서 듣는 이가 연상할 수 있는 ‘의미’는 열려있다. 모호한 의미 대신 음악은 분위기를 형성해 한 공간의 대기를 장악한다. 또한 음악은 듣는 이에게로 다가와 마음의 물결에 파장을

3) 엠프 외 혼합재료\_가변설치

일으키는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와 닿는다’는 의미에서 체험적이고 사실적이다. 스크린은 저기 서 있고 소리는 내게 온다.(한국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2013: 성기완, 2003재인용) 소리예술의 메시지는 청자를 감정이입 속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특징을 가진다. 특히 가청성의 소재를 다루는 소리예술의 청각적 수용과정은 걱정적이고 신비스러운 체험으로서 행복, 사랑, 동경, 아름다움 등을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서 소리예술은 가장 높은 정신적 형식인 영혼과 지성이 이끌어내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소리예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소리예술의 기본 매체는 공기와 공간, 신체기관 그리고 악기라고 할 수 있다. 소리예술의 매체는 소리커뮤니케이션의 매개 방식에 따라 여러 단계 구분된다. 시낭송이나 성악에서 소리예술의 매체는 목소리이고, 기악이 연주될 때는 악기이며, 성악과 기악 또는 영상을 포함하는 혼합 형태의 음악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송출될 수도 있다. 소리예술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는 공동체를 향한 상상과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수용되고, 청자의 감정이입을 겨냥한다. 소리예술 작품인 음악을 청취하는 행위는 다가오는 음파를 자기의 내면성에 집중시킴으로써 음악의 메시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소리예술의 청각적 수용 과정은 여러 감정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걱정적이고 신비스러운 체험이다. 곧, 소리예술 메시지의 본질은 최고 형식의 정신, 영혼 그리고 지성이 이끌어낼 수 있다. 소리예술 작품을 인지하는 청취자는 정답을 요구하는 흑백론적 사고의 언어적 이원론을 뛰어넘는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한다. 합리적 토론은 중요하지 않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예술작품은 그 의미가 모호함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소리예술의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인지에서와는 달리 특별한 인지능력과 상상력을 요구하게 된다. 소리예술은 눈에 의해 인지되는 조형예술과 달리, 청각기관인 귀에 의해 수용된다. 보기는 개별적인 의미교환의 감각기관을 작동시키는 데 반해, 듣기는 공동체적 의미교환의 의미를 갖는다. 자율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시각적 능력에 비하여 청각은 열려있고 무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예술 매체로는 기체에 비해 견고한 구조를 가진

고체가 있으며, 고체는 소리의 파장을 반사시키거나 차단한다. 액체는 소리를 부분적으로 반사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음향효과를 낸다. 고상한 취향을 가진 연주자와 청중은 기체, 액체 그리고 차음재로서 고체를 적절히 배합해 소리예술을 즐기기도 한다. 순수한 자연 공간, 음향에 최적화된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 또는 수상 음악이 펼쳐지는 곳은 모두 소리예술의 매체가 된다(한국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2013). 사운드 아트는 소리를 매체로 하거나, 소리 자체를 주체로 사용하는 예술이다. 미술에서 사운드 아트는 사운드 웨이브, 듣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일상에서 방해로 여겨지는 ‘소음’뿐만 아니라 신체가 내는 말소리와 웅얼거림, 생활 속에 나는 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소리의 영역은 퍼져 나가는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키며 관람객에게 적극적인 청각, 시각, 공간 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한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리어 들리는 것이다. 소리를 주제로 한 사운드 아트는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가 융합된 형태이다. 최초의 축음기가 발명된 기점으로 목소리는 신체에서 분리되었고, 사운드는 과학기술에 의해 기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 3) 생태환경 소리조형

많은 지식이 있다고 인성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듯이 환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태도이다. 따라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단지 지식전달의 영역이 아니라 감수성과 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행태론’은 환경 감수성을 환경에 감정을 이입하여 보는 개인의 ‘결과적 구현’이나 ‘정의적 태도’로 보고 있다. 그중 한 분야인 ‘소리 공간 조형’은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소리들’을 녹음하고 조합하여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 환경적 요소를 녹음하고 재배열하여 공간감을 확보하는 음향이다. 특정 공간에서 녹음기를 작동하고 기다린다. 후에 그것을 집이나 밀폐된 조용한 공간에서 들으면 그 장소에서는 당연한 소음이라 느끼지 못하였던 여러 소리들

이 들리게 된다. 소리 공간 조형은 이러한 '소리'에 대하여 공간적 재배열을 통해 청중의 상상을 자극하게 된다. 공간을 상상을 하게 만들며, 또 장소와 소리에 대한 기록이 된다. 음악으로도 기능한다(나무위키). 이러한 조형감각은 소리 환경 전체를 풍경으로 해석한다. 시각적인 풍경에 대하여 귀로 파악하는 풍경, 즉 청각적 경관 또는 소리풍경을 제작한다. 이때 '소리'는 음악의 음, 인위적인 소리나 자연계의 소리 이르는 다종다양한 울림에 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이러한 사고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개개의 소리를 각각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환경 전체를 하나의 경관이나 풍경으로서 종합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특정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의미화 하여 가치를 두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음을 만드는 요소주의에서 탈피하여 각각의 공간에 있어서 소리환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다. 전체적인 의미로 경관과 문화와 관여하여 소리의 환원을 추구한다. '사운드 스케이프'의 본래의 목적은 풍경의 정체성을 찾아내어 독자적인 소리문화를 형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1960년대 말 북아메리카의 생태학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생태학 운동으로써 소리환경 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남기고 싶은 소리풍경100선 -1996>을 환경청이 시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운드 디자인적 개념의 접근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에는 1.고드름 낙수소리, 2.어름장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 3.동굴 낙수소리, 4.여름 폭포소리, 5.몽돌 파도에 휩쓸리는 소리, 6.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7.천둥소리, 8.장마 비바람소리, 9.우박 떨어지는 소리, 10.가시연꽃밭의 폭우소리, 11.불어난 계곡물 쏟아져 내리는 소리, 12.벼이삭 부딪히는 소리, 13.낙엽지는 소리, 14.싸리비로 낙엽쓰는 소리, 15.낙엽밟는 소리, 16.바람에 낙엽 구르는 소리, 17.역새 부딪히는 소리, 18.갈대 부딪히는 소리, 19.눈보라 소리, 20.설피 신고 눈 밟는 소리, 21.겨울얼음장 깨지는 소리(...)등이다>(김향 전지현, 장길수, 국찬, 신용규, 2006)머레이 쉼퍼는 현대 문명에 대한 반성적 입장에서 비롯된 환경운동에 대한 음악적 대답으로서의 '소리 경관'운동에 나섰다. 발생하는 소리들을 기조음, 신호음, 사운드마크의 요소로 분별하고 도시의 음향적 소재

로 삼았다. 소음 영역의 요소들이었지만 한 세대 앞선 구체음악의 실천에 의해 이미 그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었다. 거리의 자동차들, 기차와 공장, 공사장 등에서 나는 소음들은 도시 문명이 형성되기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낯선 음향적 풍경이다. 오디오 기기들 또한 마찬가지다. 새로운 발명품들은 시끄러운 소음을 야기했다. 현대 도시의 음향적 환경은 공해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8년 일본에서 소음공해 관련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이래 지구촌 대부분의 법과 제도가 낮과 밤, 주거지와 공장 지구 등의 구분에 기초하여 음량 상한선을 책정하는 규제 방법만을 제시해 왔다 면, ‘소리 경관’ 운동은 소음 환경을 감성적인 질료들로 간주하여 다루기 시작했다. 청각적 풍경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환경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소리 경관’운동은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음향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 냈다. 단기간에 성과를 과시할 수는 없었지만 선진국들은 ‘소리 경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공공 행정 및 예술 분야에서 음악, 음향적 대상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여타 현대예술과 달리 모두를 위한 음악을 추구하였다. 한편으로는 자극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갖는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음악적 치유와 공동체성의 회복을 추구했다. 우리의 일상을 늘 아름다운 청각적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운동이다(김병오, 2013). 소리 경관 디자인은 공간에 대한 최적의 소리환경을 알아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를 고려하여 순서에 따라 이를 구체화 하는 것을 음 환경 디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음 환경 디자인은 사상의 측면과 관련하여 어떤 장소에 어떤 음을 얼마나 어떠한 수단으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도입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나가는 일로서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주관적이거나 직관적인 디자인방법에서 탈피하고 논리적 접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체계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음의 도입을 위한 대상공간의 특성 및 환경

과악 한 후 음을 도입하기 위한 공간영역 단위를 설정하고 음의 도입을 위한 연출방법과 수법을 검토한다(장길수, 신종현, 송민정, 국찬, 2005).

## 2.교과과정 구성 및 방향

### 1)2015년 교과과정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진로 교육의 부재와 성적지상주의의 경쟁 체제적 분위기 속에서 도입되었다. 역량 중심 창의성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부각되면서 협동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키우고 꿈과 끼를 발산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선진국들에서 전환학년제, 에프터 스쿨, 진로체험학습, 직장 체험활동 등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3년 5월, 자유학기 시범 운영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연구학교를 거쳐 2015년 6개 시도에서 시행되기 시작하고, 2016년 전국의 중학교에서 점차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이어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였다. 자유학기 시범 운영 결과, 활동 중심 수업, 참여토론 수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 참여의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력, 학교 구성원간 친밀도를 높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15). 그러나 자유학기는 진로체험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다양한 교과 영역으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홍창남, 김혜영, 2016 재인용).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선택된 한 학기 동안 학생 주도적 수업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5년에 발표한 자유학기의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

과 끼를 찾는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자기 성찰 및 발전 계기를 제공한다. 둘째,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등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한다. 셋째,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및 신뢰 형성, 적극적 참여 및 성취 경험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교육을 실현한다. 자유학기의 추진 방향은 첫째,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중심으로 구성한다. 둘째, 자유학기를 중심으로 진로의 인식, 탐색, 준비, 설계 등 진로교육을 연계하고 활성화한다. 셋째, 진로탐색 활동, 예술 활동 등의 활동을 활성화 한다. 넷째,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유연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이재창, 2016).

고세영(2018)의 석사논문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질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고세영의 논문에서 제시한 교사 들 중 한 교사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보니 준비가 어려운 측면에서 교육의 내실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교사24>는 갑작스럽게 맡게 된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수업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도 불만족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진술했다. <교사19>는 자유학기제의 제도상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어려운 점 포함하여 여러 주변 여건이 학업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진술했다. 학업 손실 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수업설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업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별 교육 방법이 유사하여 중첩되는 경우가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첩된 수업 내용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전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고 지루함을 나타내도록 한다. 아무런 자료와 수업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 스스로 새로 구성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사17> 또한 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고세영, 2018).

블록타임제는 시간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각각 1-2교시, 3-4교시, 5-6교시, 7-8교시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을 없애고 각 블록을 90분 수업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시간의 축소로 인해 하루당 총 60분의 추가 시간이 남는다. 이 60분 중 20분은 점심시간으로 활용되어 원래 12시에서 1시 10분이었던 점심시간이 12시 20분에서 1시 50분으로 늘었고, 나머지 40분은 3교시 뒤에 4교시의 시간으로 사용된다. 전체 교시 수는 8교시로 늘어났다. 수업을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의 비효율성을 단축시키는 이점도 있지만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긴 수업시간 만큼 집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술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짧은 시간에 끝내기 어려운 만큼 블록타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융합인재교육은 미국의 STEAM에서 들어왔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머리글자를 따서 STEAM을 만들었으며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RIDS에서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술이 포함된 융합교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일반 역량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각 교과의 역량을 도출했다. 미술교과의 역량은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 융합능력, 미술문화 이해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의 5가지로 제시되었다. 미술교과 역량은 일반 역량과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융합적 사고, 고등사고기능, 문제해결력 등의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차원에서 융합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나 ‘핵심개념’을 활용하여 융합 교수 학습 활동 계획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미술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과학기술분야교과 안에서 미술교과 학습의 독창적 가치와 고유의 학습 원리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STEAM 리더스쿨 프로그램, 교사연구회 프로그램,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 국가나 시도 교육청 차원 학교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단지 융합 자체만을 위한 융합으로 인하여 다양한 학습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 2)2009,2015교과서 분석

### ① 생태환경미술

2009,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지미술과 환경 생태미술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 생태미술과 대지미술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이 자연을 활용한 미술을 환경과의 관련성에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생태미술의 개념과, 사진과 영상의 활용에 따른 청각적 효과가 각각 다른 단원에서 다루고 있어 복합적인 사고과정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주로 자연을 활용한 예술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학생들의 작품을 예시로 보여준다. 자연의 여러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천재교육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과 이를 담은 예술 작품과 의상을 제시하고, 자연의 모습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학생들이 자연을 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깨우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주)아침나라 교과서에서는 대지미술과 생태미술을 구분하여 전달하고 있어, 학생들이 생태미술에 대한 개념 전달이 다른 교과서에서 보다 수월하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대지미술 파트에서 소리와 자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출판 교과서와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는 자연을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의 감수성과 관련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접근을 했다.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해외 작가들의 자연에서 새로운 접근을 한 외국 작가들의 작품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1) 2009 개정 교과서 생태환경 미술 분석

2009 개정	
<p>천재교육 체험 (2) 중학교</p>	<p>이해 - 자연물과 자연 현상의 아름다움과 구조를 탐색한다. 표현 -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감상 - 자연을 예술 안으로 끌어들이 작품을 찾아보고 감상한다. &lt;자료&gt;백령도의 기암절벽, 눈결정체, 해바라기 씨 구조, 에스파냐의 플라멩코 무용의상 -카네이션, 청자 양각 죽절문 병- 대나무숲, 라이트(미국)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내부구조 (1937)- 앵무조개 내부구조, 보세(독일)국립아쿠아틱 센터 (중국)- 비누거품 확대모습, 데네반 해변드로잉, 골즈워디, 크리스토</p>
<p>중학교 형설출판사 -1. 인간과 자연 -2) 자연에서 가져오기</p>	<p>이해-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이용한 작품을 알아본다. 표현-자연에서 수집한 재료를 활용하여 조형미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본다. 감상-자연을 이용한 미술과 표현 방법을 살펴본다. &lt;자료&gt;스톤헨지 유적, 돌담 (제주도), 대나무 바구니, 솟대, 얼음새 (캐나다, 토론토) 복 토끼 눈 조각 (한국, 평창)자연을 이용한 인간의 예술 활동을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 어떤 조형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완성된 작품을 사진으로 남기고, 친구들과 함께 감상해 보자. 또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본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자연의 소중함과 자연 자원의 미적 활용에 대해 토의해 보자.</p>
<p>(주)아침나라 중학교 체험 - 자연과 함께</p>	<p>&lt;대지미술&gt; 자연에서 찾은 아름다움-자연에서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표현 한다.&lt;자료&gt;나선형(데네반), 둘러싸인 섬들 (크리스토, 클로드), 물고기 우산(김해심), 머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최영욱), 솟대(박선우 학생), 물고기 (이상현), 목마 (젠시).평가-자연에서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찾고 표현하였는가? 자연환경을 이용한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연물을 이용하여 표현 하였는가? 자연물의 느낌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찾아보고 어떤 조형적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토론한다.&lt;생태미술, 그린디자인&gt;.&lt;자료&gt;녹고있는 사람(아제베두), 솔라플라워(미국, 태양열), 재활용으로 꾸민 쇼핑물(캐나다), 해양오염 캠페인광고(일회용</p>

	플라스틱 수저 산호초), 1리터 수도꼭지(도용구).평가- 자연 환경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였는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 친화적인 작품을 만들었는가 ?
교학사 중학교-체험 의 즐거움 1.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자연이 창조한 아름다운 형태와 구조, 색 등을 찾아보고, 미술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암대극 확대모양, 암대극 군락지(사진, 한국식물도감 /제주도). 소금 침전물로 이루어진 강줄기(모로코의 서부 사하라 사막 /2009년작). 물그림자(김창겸),자연이 빛은 조각(중국 북서부 간쑤 성 장예),Tree#3 이명호, 일어서는 땅(흙벽위에 종이 부조), 나무와 돌의 선(강희준), 크리스토(문). <u>웅덩이를 위한 음악 (피너)-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음향설치. 눈위에서(이재효), 물결 모양의 풀 (골즈위디). 회오리 (티에리)- 물과 나무, 빛과 소리를 주제, 작품 제작 후 현장에 보전하여 변화관찰.</u>
경기도 교육청 중학교	1.소통, 세상속으로-1.2 자연 미술에 안기다. 순천만 작업-(유동조)세가지물, (골즈위시) 감동적인 북극, (김아타) 자연이 그린 그림 .
미진사 중학교	1.자연의 느낌 속으로. 활동1-운동장 주변이나 숲에서 새로 생겨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찾아보고 그 느낌과 연상되는 것들을 써보자.활동2-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1.숲의 소리를 점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모양의 소리가 나올까요?. 2.숲의 소리를 선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유로운 선으로 길게 또는 짧게 표현합니다. 활동3-자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무늬를 이용하여 나의 마음을 나타내 보자.
<u>동아출판</u> p.016	1. 자연체험활동-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 느껴보기. 방법탐색-자연을 느끼고 사물을 이용하여 자연을 변화시켜 보자. 재료탐색- 노끈, 두꺼운 실, 가위 등의 재료를 이용한다.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자연과 어떻게 교감할 것인지 생각한다. 친구와 각각 하천의 반대편에 서서 노끈을 물 위에 늘어뜨리고 서로 줄을 잡아 물살의 흐름과 바람의 힘을 느껴본다. 노끈을 물 위에 놓으면 흐르는 물이 갈라지면서 자연스러운 물결무늬가 생긴다. 자연에 나의 힘이 더해지면서 더욱 친밀하게 자연을 느끼고

	교감 할 수 있다. <평가하기>오감을 통하여 자연을 지각하고 체험해 보았는가?. 협동하여 물의 흐름과 바람의 힘을 느껴 보고 느낌을 발표하였는가?. 2.자연체험활동-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방법탐색-자연재료를 이용하여 기억에 남을 조형물을 만들어 본다. 재료탐색-흙, 꽃과 나뭇잎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그 외 기타 재료를 이용한다.
비상교육 p12	자연과 하나 된 작품<자료>김다혜(학생작)<숨사탕>.문득 쳐다본 하늘의 뭉게구름이 마치 숨처럼 보여 막대를 대어 숨사탕을 표현하였다. 김용민<바라보다>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부러진 나뭇가지를 엮어 표현. 박경근-물결 물웅덩이에 있는 돌맹이에 올라 발을 구르면서 물결의 움직임 느껴보았다.
중학교 미래엔 p12	<자료>골즈워드<자연물>,라프와<거미줄>, 펠스트롬<자연적 치료>, 고승현<가야금>활동-주변의 자연환경 속에 자신을 대표하는 사물을 놓고 사진을 찍어 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지미술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들의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작품이나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성격 또한 생태환경을 생각한 자연적 미술활동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다음 표에서 각 교과서의 자료와 교육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비상교육에서 이명호, 이규민, 이승택, 크리스토의 작업 특성은 자연을 생각하는 생태환경 미술의 방향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태환경 미술의 개념을 혼동할 수 있다. <미진사>에서 제시한 학생작의 대부분은 생태환경적 개념보다는 대지미술로 볼 수 있다.

(표 2) 2015 개정 교과서 생태환경 미술 분석

2015 개정	
중학교 비상교육p.6	자연과 나. 학습목표-감각을 통해 자연과 나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 자연을 활용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열기-자연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미

	<p>술과 자연은 어떤 관계일까? &lt;자료&gt; 1.자연으로 감각 깨우기-다양한 감각으로 자연을 탐색. 2.정현우외2(학생작)-‘나’를 상징하는 색 자연에서 찾기. 나를 상징하는 색을 자연에 배치. 3.서유진외 2명 운동장 그림자 드로잉, 흙 물 설치 등 신체활동. 4.폴즈워드-비 그림자. 5.클라인-나뭇잎 설치 2011. 6.아마도르 -해변에 갈퀴흔적, 생성 소멸. 7.김주연-존재의 가벼움-(사진)옷에 싹이 난 모습 조형설치. 8. 이명호 - 나무뒤에 캔버스 천 설치. 9. 이규민 - 꿈꾸는 달팽이. 10. 이승택 -바람. 11. 크리스토 설치. 12. 훈데르트 바서-블루마우 온천, 자연을 사랑한 건축가. 자연주의 사상.13. 자연의 색을 담아 표현하기</p>
<p>중학교 미진사p.4</p>	<p>길 위에서. 주변의 자연과 상호 작용을 하며 나와 자연환경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lt;자료&gt;1.길 위의 드로잉 2.길 위의 그림자 따라 그리기 (분필) 3.자연보고 드로잉 4.류재원(학생작) 돌꽃 만다라, 오수인 조수빈(학생작) 꽃잎만다라 5. 종이에 구멍을 뚫어 다양한 자연의 색을 창의적으로 비추다. 6.우리는 대지미술가. 1)박세현 외2. (학생작품)둥지만들기 (솔잎, 자갈.) 2)박세령 외2. 돌탑의 무지개 그림자 (낙엽, 돌) 3)오서연(학생작)나뭇잎 원피스 - 그림자 사진. 7.얼음에 비친 색-꽃잎 등을 넣어 얼린 얼음리스. 7. 흙 생명의 흔적 - 흙으로 차린 밥상. 8.고현희 - 자연을 재료로 시루떡 표현. 9.게릴라 가드닝. 10.학교 공간 바꾸기. 11.공간 재해석하기</p>

②청각미술

2009개정 교과서와 2015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들이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을 불러내기에 수준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작품을 교사가 감각적인 안목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 표에서는 각각 교과서가 제시하는 자료와 교육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 청각미술 단원은 주로 과거의 작가 작품과 공감하기 어려운 정적인 작품들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생

들을 동기부여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작품과, 백남준, 존 케이지등 어린 학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제시 되었다.

(표 3) 2009 개정 교과서 청각미술 단원분석

2009 개정	
고등학교 미술 창작 씨마스 -p181	노래를 듣고 느낀 대로 표현하기. <자료>케이지<우연성의 음악>, 칸딘스키 <즉흥19> 평가-노래에 담긴 내용과 느낌이 이미지로 잘 드러났는가 ?-아이디어 발상 전개 과정이 창의적인가 ?- 계획에 따라 작품을 잘 완성 하였는가 ?
고등학교 미술문화 미술과 생활 p105 미술과 소리의 만남	학습목표-소리가 미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음악과 미술의 접목을 통하여 미술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자료> 사이매틱스 설치미술 <오피움블루 ZIZIZIC>-하얀 콘크리트 용액이 응고되는 과정에 초저음역용 스피커인 서브우퍼의 진동을 적용한 작품으로 , 소리와 진동이 만들어 내는 기하학적 형상과 물결치는 듯한 이미지의 유형을 보여 주는 설치미술 작품이다 , 칸딘스키 즉흥19,윈도미디어플레이어의 비주얼라이제이션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조금 더 대중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발상의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도 학생들의 수준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오페라 무대 자료는 학생들이 직접 ‘오페라 무대’를 기획하여 참여수업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가영, 오순미 의 작품은 학생들의 관심사와 수준에 따라 이해도 수준이 매우 다르다.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난도의 작업을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의 흥미도를 낮출 수 있다.

(표 4) 2015 개정 교과서 청각미술 단원분석

2015 개정	
비상교육 p.24	미술 , 융합의 중심. 학습목표-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탐색 할 수 있다.<자료>1.오페라 ‘라 보엠’공연 무대-호수 위에 설치된 오페라 무대. 2.전가영 (한국

	1978~) 색채악보 -구름-하나의 색에 하나의 음을 연결짓고 시각과 함께 감상. 3.오순미-카오스 프랙털
--	---

### 3)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

모더니즘 하에서 ‘절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심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자체의 가치에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모더니즘적 비 절충주의 교육과정은 하나의 대서사를 믿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모더니스트의 실험은 ‘미술의 본질’에 대한 ‘아방가르드 엘리트’들의 자아선언 일 뿐이다. 이러한 엘리트주의 속에서 대중은 소극적인 관람자의 역할로만 국한되었다. 모더니즘 예술가 들은 일반 대중과는 다른 존재로써 구분되었다. 그러나 그린버그가 추구한 칸딘스키의 순수추상에서, 잭슨폴록을 거치면서 현대 미술은 더 이상 평면성에 국한 된 타블로 회화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현대 예술은 과거에 있었던 예술의 형식보다 내용에서 더욱 영감을 받고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건축의 분야에서 즉흥적이고 엉뚱한 상상력을 적용하기도 한다. 모든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미리 결정하려고 하는 기존의 ‘유기적 건축 미학’에 구속받지 않는다. 더 이상 21세기에 전개되었던 ‘굿 디자인’과 ‘굿 디자인의 제작 원리’에 관하여 비슷한 방법의 미학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60년대의 미국에서는 펠드먼, 아이스너, 맥피 등의 미술교육자들이 미술의 본질적인 교육적인 역할에 대하여 이론을 제시하였다. 미적 경험과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은 1940-50년대에 ‘창의성 계발’만을 추구했던 비학문적 미국식 교육방식을 떠나 과학, 수학 등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하여 실질적인 학습적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필요한 미술교과만의 독자적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스푸트니크 쇼크’로서 설명할 수 있다. 옛 소련이 1957년 카자흐스탄의 사막에서 ‘스푸트니크 1호’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는데 세계 최초의 성과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소련을 앞서고 있다고 믿었던 미국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미국 사회 내에서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다시 고려하게 되었다. 미술 교육 또한 과학교과와의 관련성에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교과만의 독자적인 교육적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내용 또한 이해력과 감상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미술교과의 교육적 가치를 부각했다. 또한 당시에는 시민권운동, 페미니즘, 그리고 백인종에 속하지 않는 민족과 인종그룹들의 미국 주류로의 대거 참여와 같은 일련의 변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기류와 더불어 포스트모던미술가들은 모더니스트들의 철칙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앤디 워홀의 스프 캔, 브릴로 박스와 같이 모더니스트에게는 저급의 문화라고 여겨지는 산업의 산물이 고급의 문화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하였으며, 마릴린 먼로와 같은 주류의 유명인사가 주류를 뒤집기 위한 도상으로 사용된 것을 들 수 있다. 대중문화를 위한 교육의 방식 개발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 교육 철학자 해리 브라우디와 달리 빈센트 라니에는 대중문화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사회의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또한 학생들이 현실에서 지각하는 이미지와 경험을 반영한 매체로서 '새로운 매체'라 부른 영화와 텔레비전을 활용한 과정을 추구하였다. 전통적인 미술매체인 드로잉, 회화 학습을 중단하길 권했다(Afland, 2002; 장용석, 2005 재인용). 이러한 견해는 미술교육이 시민인종 억압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960년대 대중문화는 책, 불책 등을 포함하는 아방가르드의 양식을 흡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거대하게 포진해오는 시각적 이미지와 잡지, TV, 오락, 광고, 인터넷에 시각적으로 표현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대중적으로 부진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디자인들이 그들 각각의 대상의 관심을 사로잡고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사회맥락'과 '다원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각문화 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할 논제는 '시각적 문해력'이 되었다. 시각적 문해력이란 여러 가지 시각이미지들의 형식에 의하여 전달되는 이미지의 사회적 의미를 읽고 해석하여 삶에 창의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시각 이미지를 통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992년 미국은 미디어 교육에 대하여 “현대의 다양한 시각적 의미를 접하고 그것을 분석, 평가하여 소통하는 능력”으로 보았다(장용석, 2005). 현재 세대는 미디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시각이미지는 현실을 뛰어넘은 현실로써 작용하고 있다. 현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시각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나은 시각이미지를 구성하고 현실을 변화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문화를 재구성 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보편적인 서구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경향이라고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호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를 통해 원본의 무제한 복제에 대한 예를 들면서 실제와 상상의 구분이 모호한 과생실재로써 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소쉬르는 기표, 기의에 변화하는 관계로써 설명하였다. 롤랑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통한 독자의 해석에 대하여 말하였다. 시각적 문해력이란 시각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생성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개념이다. 윌슨은 시각텍스트의 전후 요소들을 관계하여 감각적, 조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시각적 문해력으로 보았다. 학생들은 각자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이미지 텍스트를 해석 할 수 있고 비평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애플랜드는 다양성을 가진 시각문화 미술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미술교육은 순차적인 모형 보다는 여러 범위를 넘나드는 유연한 형태가 더욱 적합하다고 하였다. 브루너의 나선형 모형을 극복하기 위해 ‘래티스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비순차적, 다원적 모형을 추구하였다. 길포드는 창의적인 사람의 지능을 다섯가지로 분석한 다원지능론자이다. 감수성, 유창성, 융통성, 참신성, 정교성 이 그가 말하는 다섯가지 지능이다.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를 탐구하였다(2016, 김민정). 굿맨에 의해 프로젝트 제로가 창립되고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교육의 개념적 기초가 정립되었다.

굿맨은 가드너, 퍼킨스와 함께 프로젝트 제로에서 연구했다. 이들은 실험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연구를 했다. 가드너는 ‘발달그룹’에서 정상아와 영재아의 상징사용기술을 연구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좌뇌와 우뇌 표현력 차이에 대한 표현력 차이에 대한 연구를 했다(주희선, 2010:서민지, 2014 재인용). 이 그룹의 교육적 방식은 예술가나 비평가와 같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학생에게 소개하는 인지적 접근방식이다. 나선형교육과정을 토대로 연속성 계속성의 방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교육한다. 예술적 매체를 통한 사고방식에 익숙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예술학습은 유의미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제시되어 학생들이 토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간과 기회비용도 제공되어야 한다. 아츠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영역프로젝트와 프로세스폴리오를 구안하였다. 영역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때처럼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9주에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전 후에는 항상 반성적 상담기법을 통해 활동을 성찰하고 다음 활동에 반영한다. 질문지, 동료인터뷰, 음악일지 등을 활용하고 수집한다. 프로세스폴리오는 학생들이 수행한 결과물과 과정을 모두 담은 것이다. 가드너는 프로세스폴리오가 완성작뿐 아니라 밑그림, 비평, 영향을 받은 작품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보다 프로세스 폴리오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Gardner, 2006:서민지, 2014 재인용)(서민지, 2014).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은 창의적인 자유표현 교육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로웬펠드와 허버트 리드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발달과정을 통한 인간형성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철학의 양상은 무의식이 인간의 동기유발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주장한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자아표현은 미술에서 인간의 내적 욕구와 일치하며 인격형성에 필수 요소가 된다. 전문적인 미술계에서 아방가르드의 혁신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로웬펠드의 표현주의적인 작가 성향과 초기 경력과 일치한다. 표현주의, 초현실주의와 연계성을 가진다(2000, 양정숙).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 되어 왔던 방법들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지식을 정치적 재생산 도구로 본다. 이미지를 선택하여 가르침으로써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를 분할하고 위대한 것에 대한 고정관념과 따라야 할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에서 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적인 질문과 답의 변증론처럼, 질문에 답하고 여러 가능한 대답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수동적인 태도로 지식을 '입력하는 기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고 '적극적인 지식의 생산자'로서 학생을 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치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추구하도록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 또한 포함된다. 21세기에 서양 미술교육 현장의 경향은 '도구주의'이다. 지역사회와 공생하고 도움을 주며, 국제사회로 나아가 유연하고 자유롭게 적응하여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과 다른 문화적 태도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미술 수업에서 문화적 이슈를 다루기도 한다. 특별히 이러한 교육에서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소수자들과 사회의 약자들이 재현하는 사회문화적 산물로서의 미술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게 된다. 예술작품의 시각, 지각에 의한 미적가치 그 이상에 대한 사상적 산물에 집중하는 것이다(김종무, 2006:백경미, 2006 재인용). 애플랜드(2001:백경미, 2006 재인용)의 미술교육 관점은 패러다임을 다시 읽는 것이다. 대서사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주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셸 푸코의 연구와 같이 기존의 교육과정은 사회의 감시를 받는 큰 감옥과 같았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존중으로써 교육의 관점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관점의 변화로 인하여 미술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감동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찾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

한 교육적 변화의 배경에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예술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포스트모던 미술교육의 방향은 ‘상상’을 다룬 인지적 유연성 개념에 기초한다. 인지는 18세기와 19세기를 걸쳐 철학분야에서 넓은 범주로써 다루어졌던 개념이다. 20세기에 ‘상상’과 ‘인지’의 개념을 소홀히 다루게 되었던 것은 실증주의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과학적 실체로서 심리학적 행동주의는 실증주의라는 논리적 결과를 수반했다. 그러한 사상은 전반적인 교육의 방향을 주도하게 되었다. 로웬펠드와 같은 미술 교육가는 상상적 양상인 예술적 창의성을 찬양했지만, 정작 20세기의 학교교육에서는 행동주의의 지배 아래서 발전 했다. 상상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옆길로 물러나게 되었다 (Afland, 2002; 백경미, 2006 재인용). 상상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하는 ‘정신적 이미지’로 구상하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을 결합하고 재조직하여 개념과 이미지를 창조하는 힘이다. 이러한 ‘상상’의 개념은 예술적 창조, 발명 등의 일상적 세계의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마크 존(MarkJohnson)은 도식, 은유, 이야기 등을 인식에서의 상상 요소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인지작용의 전반 범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 이외의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은유와 같은 상상적인 인지작용이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추상 개념화를 포함한 인간의 인식에서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기초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인식의 고등 형태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은유’를 주장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대중매체, 인터넷과 지리적 한계 없이 가로질러 흐르는 정보에 따른 외래 정보에 더욱 많은 접촉의 기회가 생김에 따라, 단일의 가치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교육적인 환경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양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가치의 충돌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충돌은 학교, 학생집단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 다른 집단의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미국에서 다문화 교육은 1960-70년대에 주목 받게 되었다. 미술교육에 있어 다문화를 가르치는 것의 의미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문화 속에서 보여 지는

고유형태와 상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 학문과의 통합교육을 의미하기도 한다(김혜숙, 1997: 백경미, 2006 재인용). 지식의 세분화는 실생활의 경험을 구분시킨 학과중심교육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실생활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고등사고력의 함양을 어렵도록 할 수 있다. 실생활의 한 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론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한 학문만의 고유학습 유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의 비슷한 학과들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학문 간의 연구가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지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교육의 화두이다. 타 교과를 결합한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 등은 이루어졌지만 간학문적 접근방식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대처하고 분석하는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미술교육의 간학문적 연구는 미비하였다. 맥피는 인류학적, 비교 문화적, 사회학적 관점을 통한 미술, 대중문화, 인공적 그리고 자연 환경의 연구에 기반 미술교육을 주장하였다(Tavin, 2005:백경미, 2006 재인용). 문화와 정보의 공유로 인한 지구촌 의식과 세계 상호 의존성의 증가로 인해 인접 학문 간에 협동적으로 연구하는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동원한 간학문적 연구를 통한 미술교육은 문화, 사회, 개인의 삶 속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개념미술은 이러한 교육적 개념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물질적인 형태보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미술은 물질적 매개체 보다는 상황적 맥락이나, 아이디어에 의하여 재구성 될 수 있는 미술개념이다(백경미, 2006). 미술은 점차 시사적인 관점을 많이 다루게 됨에 따라 정보전달의 매체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일반적인 신문과의 차이는 ‘상황적인 복잡성’을 독자가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술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관점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맥락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 관점에서 이러한 작품은 형식적인 측면과 배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시야를 허용하여 감상하고 이를 통하여 각각 개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세계를 창의적인 관점으로 재구성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점에서는 애플랜드의 “격자형 교육과정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피아제의 순차적인 구성주의의 계층적인 학습모델과 달리 학습자들이 수직적 수평적 방향의 그리드 형태로 다양하게 순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엇갈린 경로의 형태로 학습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다원적인 방향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구조는 여유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예술을 다른 영역 지식들과의 관련 속에서 관찰 할 수 있도록 한다(함영숙, 2011).

### Ⅲ. 융합수업으로서 생태 환경 소리 조형

#### 1. 프로그램 개발

전반적인 수업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프로세스 폴리오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의 방법을 허용하고 영상과 사진, 기록 등을 작품으로 인정한다. 총 7회의 수업을 제안한다. 일련의 수업은 생태환경미술 2가지, 청각미술 3가지, 생태환경 소리조형 2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생태환경미술 수업에서 생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조형적, 시각적 감각을 체험하기 위하여 ①수업은 친환경적인 생활용품 만들기 ②수업에서 자연과 자신의 이미지 결합하기 수업을 제안한다. 또한 청각적 측면에서 시각이미지와 청각의 결합을 탐구하고 일상생활의 소음을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악기를 탐구하기 위하여 ③수업에서 문인화와 청각관련수업, ④수업에서 새로운 악기 만들기, ⑤수업은 숨쉬는 소리녹음, 토론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여러 수업의 최종적인 도달점으로서 ⑥수업은 생태적 소음의 시각적 생태조형과의 접목 수업이다. ⑦수업은 소리 환경 접목 수업이다. ⑥,⑦의 생태환경 소리조형 수업은 앞의 ①, ②시각미술수업과 ③,④,⑤청각미술수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로써 본 논문의 궁극적인 도달점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모든 수업은 청각과 시각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사의 재량과 수업의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①수업은 블록타임을 적용하여 총 180분으로서 4차시에 해당한다. ②수업은 블록타임을 적용하여 총 90분으로서 2차시에 해당한다. ③수업은 총 50분으로서 1차시에 해당하며 블록타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수업은 총 50분으로서 1차시에 해당하며 블록타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수업은 블록타임을 적용하여 총 180분으로서 4차시에 해당한다. ⑥수업은 블록타임을 적용하여 총 180분으로서 4차시에 해당한다. ⑦수업 또한 블록타임을 적용하여 총 180분으로서 4차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7회에 해당하는 수

업은 모두  $4+2+1+1+4+4+4=$ 총20차시에 해당한다.  $180+90+50+50+180+180+180=$ 총910분이다. 수업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4차시로 구성된 수업은 각 2차시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업은 7회로써 구성되지만 4차시의 수업을 2개의 수업으로 나눠서 최소한의 단위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총 11회의 수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저학년 1학기에서 2학기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나 수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생태환경미술 프로그램

현재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료의 제시 양식은 자연, 생태미술과 대지 미술과의 차이와 생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환경의 보존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자연친화적인 자료와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거나 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는 신문기사나, 세계 각국의 현장 정보를 먼저 알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을 활용한 미술과,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자연을 해치지 않는 미술로서 자료를 분석하여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연에 대한 존중감을 기르기 위한 학습 자료를 교사가 미적인 안목으로 분석하여 설명 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단원 에서 다루고 있는 사진과 영상 분야는 학습량을 늘리고 미술작업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도록 제시되어 있다. 핸드폰과 영상작업에 능숙한 현대 청소년들에게 융합적인 생태환경 소리미술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량을 줄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융합 교육은 생태환경 미술과 생태적 청각분야의 융합을 보다 자연스럽도록 돕는다. 과정미술의 개념 또한 활동으로써 통합적 이해를 구성할 수 있다. 생태미술의 특성상 자연과 함께 생성 소멸되는 과정과 함께 사진과 영상의 활용이 주가 되므로 기기를 활용한 작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사진, 영상을 다른 단원과 통합적으로 수업을 진행 할 때 청각수업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학생작품

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구체적인 사고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례 몇 가지만 제시하여 틀에 박힌 작업을 만들어 내도록 한정지을 가능성이 있다. 교사와의 일대일 면담과 함께 작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작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디어 생성의 과정을 제안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①실생활에 활용되는 친환경적 디자인

학생들이 친환경적 개념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술적 과정이면서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생하도록 하기에 적합한 수업을 제안했다. 총 4차시로 진행되며, 블록타임제를 활용한다. 90분 수업이 두 번 합쳐진 수업으로 쉬는 시간 없이 180분으로 진행된다. 조별협동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교사가 돌아다니며 피드백 하는 형식으로서 학생들이 팀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예시작품으로는 친환경적 책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시했다. 책의 종이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씨앗을 종이 속에 숨기고 다 읽은 책을 심는 활동까지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 크게 2가지 구성의 수업이다. 1,2차시 3,4차시로 나눌 수 있다. 1,2차시에는 차시에 따른 수업진행을 예고하고, 사회의 환경적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나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문제의식을 촉발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도달해야 할 도착점 행동인 학습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아이디어 구상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시작품을 제시한다. 예시작을 설명할 때에는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아이디어 구상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시작으로 제시되는 ‘심을 수 있는 책’의 영상은 책을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이미지와 심어서 자랄 수 있는 생태활동과 관련하여 이미지와 자연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이미지와 자연활동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 작업에 대하여 다수 소개하

고 학생들 주변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 적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대화하고 토론한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를 파악하고 팀별 논의를 통하여 활동지에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교사가 팀별로 순회하면서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작한 활동지에 대하여 피드백하고 지도한다. 특히 아이디어와 이미지와의 관련성이나 생태환경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고려한다. 3,4차시에는 활동지에 계획한 활동을 실행하고 핸드폰 등의 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사에게 제출하고, 30분정도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표 5) 실생활에 활용되는 친환경적 조형 수업

학습목표 및 내용			
교과/장소		교사	김지윤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	교사활동	학생활동	유의점
총 180 분	1,2 차시		
3 분 차시예고	-간단한 인사로 수업을 시작한다. -1.2.3.4 차시 1,2/3,4 차시로 나눠서, 앞차시에 인지정의적(교실수업)뒷차시에 심동적 수업(현장수업)을 예고한다. -학급 반장에게 협동학습을 위한 조별 활동지를 배부하며 인원을 검토하도록 한다.	-교사의 인사에 반응한다. -차시에 따른 수업을 인지한다.  -학급 반장은 학생들 인원을 점검하고 조별 활동을 위한 자리배치와 수업 전 정리정돈을 돕는다.	차시예고에 따른 수업의 긴장도를 촉발한다.
2 분 동기유발 중요성 인식	-환경문제에 관한 자료 배포, 신문기사, 다큐 등 영상을 시청하고 교사가 부연 설명한다.	-환경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고 환경 미술에 대하여 동기 부여된다.	

<p><b>4 분</b> <b>학습문제</b> <b>수업목표 .</b> <b>중요성.</b></p>	<p>-인지 친환경 디자인의 작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정의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심동 협동하여 자연을 예술로 활용한 실용적 작품을 스케치하고 현장에서 완성 할 수 있다.</p>		
<p><b>전개</b> <b>(11 분)</b></p>	<p>-1-2.차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미술 디자인 몇 가지 제시(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개념을 표현한 예술작품 ) 영상, 사진으로 남은 작업 -개방적 질문 활용 마인드맵 판서, 아이디어 구상법 제시. -제시한 작품의 특징 판서, 환경미술의 개념 설명 -&gt;자연의 특징 몇 가지 설명</p>	<p>-환경미술 작품을 보면서 교사의 개방적 질문에 답한다.  - 교사의 판서를 보면서 작품의 특징과 개념에 대하여 인지한다. 아이디어 구상법 인지한다.</p>	<p>-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상의 유의 때문에 학교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 학교 내에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활동을 이끌어 가기 위해 사전에 학교 내의 환경을 돌아보며 작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제시해야 한다.</p>
<p><b>팀별 활동</b> <b>70 분</b></p>	<p>-활동지 제시. 활동지 활용하여 4-5명 팀이 되어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 &lt;학교 내의 자연적 환경 개선 프로젝트&gt; -테블릿 PC등 활용하여 자료수집 , 프로젝트 방향 교사가 피드백 한다. 조별로 순회지도 한다.조별</p>	<p>-활동지를 받고 활동지에 있는 내용을 조별 토론활동을 통해 완성시킨다. 활동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3-4 차시에 현장에서 완성시킬 작업에 대해 구상하고 스케치 할 수 있다. -테블릿 PC등 활용하여 자료수집하고</p>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주제와 소재 등이 생태미술의 취지와 맞는지 확인한다.	프로젝트 방향을 교사와 피드백 한다.	
<b>심화(3-4 차시)</b>			
<b>1 시간 10 분 활동</b>	학생들과 학교 내외의 주변 공간으로 나가서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고 사진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이폰, 스마트폰 활용 교사에게 사진전송) -수업 종료 30분전에 교실로 들어와서 교사가 학생들의 작품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서 보여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하도록 하고 여러 방향으로 피드백 한다.	조별로 자연에서 재료를 모으고, 공간을 찾고 연출하여 사진 촬영하여 작품을 완성한 후 교사에게 전달한다.	
<b>20 분 마무리</b>	협동학습 결과 조별로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와 관련지어서 적절한지 평가한다. 내용의 성실도 등 평가관점 적용하여 즉석 평가한다.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수업을 마무리 한다. 다음차시 준비에 대한 사항을 전달한다. 조별 책상을 그대로 둘 것. 활동지 제출할 것을 전달한다.		
자연적인 재료로 종이를 만들고, 씨앗을 함께 넣어서 식물이 자라나기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책이 단지 읽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이의 성장과정과 함께 자라나는 토양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한국에서 한지를 뜨는 모습과 비슷한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관찰 할 수 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씨앗을 심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연적인 재료를 활용한 종이가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을 자연답도록 하는 과정에 대하여 고민 해 볼 수 있는 영상이다. 또한 과정을 담은 영상이나, 작업 과정에서부터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현대적인 기록 장치를 활용한 과정중심의 작업을 보여줌으로써, 기록의 방법에 대한 전통적인 수동적 방식을 탈피하여 예술 작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도록 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협동학습을 하도록 하여 참여도 높이고 팀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며 교사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구성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모든 활동이 끝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연적인 생성과 소멸 과정을 듣고, 보고, 배우고 만들며 느낀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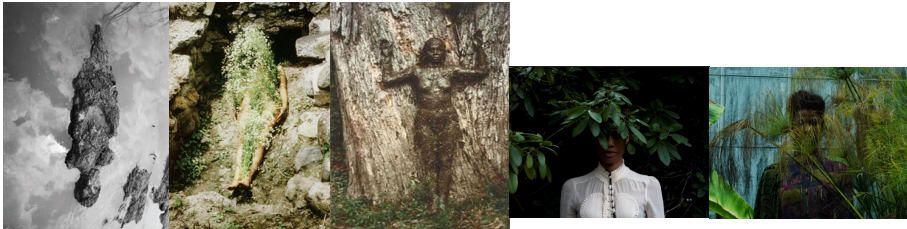
② 환경적 예술 활동을 통한 자화상 그리기

총 1,2차시로 구성되는 수업으로서 90분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이다. 자신의 이미지와 자연에 대해 고찰하고 간단한 아이디어 크로키를 하여 마무리 한다. 동기부여에서 아브라모비치의 여성주의 작업과 조라오포크의 작업을 제시하였으나, 연예인의 자연주의적 화보나 이미지 크로키 등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신의 이미지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통 공감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환경적 예술 활동을 통한 자화상을 제작하도록 했다. 자신의 이미지에 관심이 많을 중, 고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롤링페이퍼를 활용하여 조별로 조원에 대한 이미지를 자연과 연관시켜 쓰도록 했다. 조원들의 이미지 제안과 함께 자연과 자신의 이미지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의견을 종합 참고 하여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알고, 다양한 자연의 모습에 비교하여 자신만의 자화상을 제작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일관적인 자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실외 활동을 권장한다. 하지만 안전과 환경의 문제로 인해 교실 내 수업을 해야만 할 때는 반드시 자연의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제안하고 테블릿pc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자연과 함께 생각하여 봄으로써 자연 속에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연과의 관련성 속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 봄으로써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운 미적 가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표 6) 환경적 자화상 그리기 수업

학습목표 및 내용			
교과/장소		교사	김지윤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유의점
(1-2 차시) 총 90 분			
차시예고 (3 분)	-간단한 인사로 수업을 시작한다.  -학급 반장에게 협동 학습을 위한 조별 활동을 배부하며 인원을 검토하도록 한다.	-교사의 인사에 반응한다.-차시에 따른 수업을 인지한다.  -학급 반장은 학생들 인원을 점검하고 조별 활동을 위한 자리배치와 수업진 정리정돈을 돕는다.	차시예고에 따른 수업의 긴장도를 촉발한다.
동영상 동기유발 중요성 인식. (4 분)	-아브라모비치, 조라오포크 의 작품 감상. 에코여성주의 관련 작품 영상 보여준다. -여성적 이미지와 자	-여성의 이미지가 자연적으로 표현된 작품 감상하며 여성과 자연의 공통점 발견한다.	

	연의 이미지와의 상관 관계 탐색한다. 교사의 개방적 질문. (여성에 대한 이미지, 단어 칠판에 마인드맵으로 판서한다.)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한다.	
<b>수업목표 제시. (3분)</b>	인지-자연과 여성이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정의-자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심동-자연 속에서 자신 모습을 스케치하고 표현할 수 있다.		
<b>전개 1 (30분)</b>	조별로 앉는다.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하여 이름을 적고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돌아가며 이미지에 대하여 마인드맵 형식으로 작성한다. (자연과 학생의 이미지를 관련시켜 아이디어 적는다.)	롤링페이퍼에 친구의 특성과 자연적 이미지의 관련성을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마인드맵 형식으로 겹치지 않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한다.
<b>전개 2 (시간 45분)</b>	서로 돌아가며 자연적 이미지에 대한 의견을 적은 롤링페이퍼를 참고하여 자신의 자화상을 스케치한다.	자연적 이미지로써 자신의 이미지 스케치한다.	다양한 자연의 이미지 자료 제공한다.
<b>(5분)</b>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p>(도 5).(도 6).(도 7)마리나 아브라모비치 1, 2, 3. (도 8).(도 9)조라오포크 1, 2 - 자신의 자화상을 자연 뒤에 숨은 모습의 사진으로 작업했다.</p>			

## 2) 청각미술

사운드와 시각적인 자극의 상관관계를 체험하고, 사운드를 활용한 예술 작업이 소통에 주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나 기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적,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창의력의 폭을 한정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재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고, 재정적 지원 등 폭넓은 고려를 통해 작품을 실현한다. 교실 상황에 따라 아이디어 크로키에 한정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들이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을 불러내기에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동기부여적인 활동적인 작품을 교사가 미적인 안목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단원의 ③수업에서는 남중문인화를 통해 소리의 기교적 측면과 감성적 표현의 측면을 각각 나누어 시각적 표현기법으로 알아보기. ④수업에서는 악기의 다양한 모양을 연구하고 새로운 재료로 악기를 만들기. ⑤수업은 일반적 소음이 녹음되어 활용될 때의 가치 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남중문인화와 감성발라드 상관관계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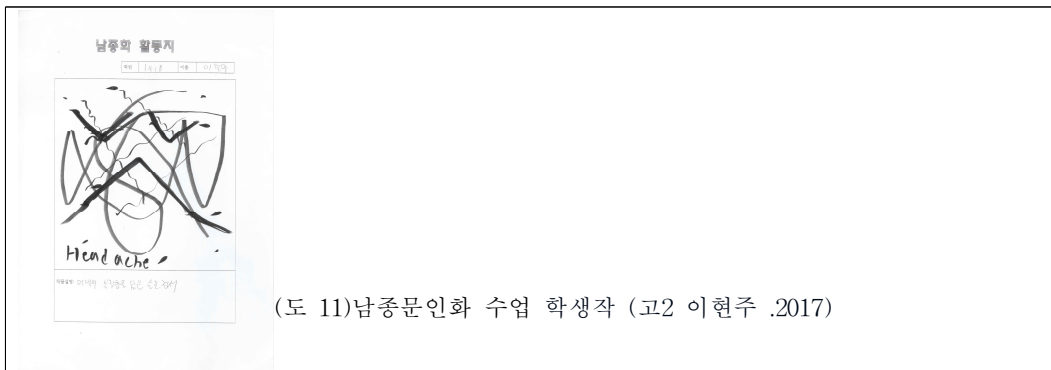
남중문인화와 감성발라드, 감정을 담은 드로잉간의 상관관계 깨우치기 위한 수업이다. 수업은 총 1차시로서 50분에 걸쳐 진행된다. 블록타임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업시수를 적용한다.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단지 이미지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신체의 오감을 깨우기 위하여 동양화의 개념, 학생들이 좋아하는 감성발라드 대중음악, 현대 미술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한다. 심층적이고 어려운 개념인 동양화를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기 있는 감각적인 발라드나 각종 대중음악과 함께 그림을 감상하도록 하여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음악과 미술과의 관련성을 알도록 하여 작품을 더욱 즐기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표 7) 남중문인화와 감성발라드 상관관계 수업

<b>학습목표 및 내용</b>
------------------

교과/장소		교사	김지윤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	교사활동	학생활동	유의점
총 50 분	1 차시		
동기유발 3 분	-간단한 인사-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먼저 k팝스타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려준다. 학생들의 관심사인 팝스타의 음악이나 인기 가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들려주고, 문인화와의 관련이 있음을 환기한다. (현재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 중 감성을 담아서 노래하는 가수와 기교가 뛰어난 가수를 반대항의 예로서 제시한다.)	-인사합니다.-화면을 보면서 음악 스타일에 따라 다른 그림 스타일이 있음을 인지한다. 기교적인 가창법과 말하듯이 노래하는 가창법의 차이를 이해한다.	‘반대항’으로서 (기교<->무기교 적 기교) 비교할 수 있다.
수업목표 2 분	1.인지-대중음악의 ‘말하듯이 노래하는’ 가창법을 통해 문인화의 ‘사의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정의-음악과 동양화의 사의적 정신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음악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로잉할 수 있다. 목표 제시하며 함께 읽는다.		
학습문제 인식 1 분	가창법에 따라(기교적<->말하듯이 부르는 노래) 동양화 화풍에 따라 (기교적 상업그림<->문인적 ‘사의성’ 화풍)비교하고 문인화 사의적 화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전개 9 분	남종문인화와 북종화의 차이를 각각 대응되는 음악과 함께 들려주고 보여준다. (교사가 직접 음악	-ppt를 보면서 기교적 음악과 감성 발라드의 말하듯 노래하는 가창법의 차이를 그림과	-단순한 미에서 시작되는 사의성에 대하여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p>선정)</p> <p>-남중문인화 사의적 측면을 , 감성을 담아서 부르는 발라드와 함께 대응시켜 함께 감상하도록 한다.</p>	<p>대응시킨다.</p> <p>-팔대산인이 어떤 감정으로 그림들을 그려냈는지는 이해하게 된다.</p>					
<p>실기 25 분</p>	<p>-기교적이거나 감성적인 음악을 들려주며 붓이나 서양화 붓으로 먹물만을 재료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p> <p>재료 - 먹물, 한지(옥당지) 물통 앞치마 등등 준비. 물감</p>						
<p>정리및과제 10 분 평가</p>	<p>T:(작품을 제작한 소감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p> <p>(관찰법)적절한 활동을 통해 표현 했는가.</p> <p>(관찰법)역동적인 붓의 사용으로 팔대산인의 힘찬 필력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였는가 .</p> <p>(관찰법)아이디어가 참신한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자기평가</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료평가</th> </tr> </thead> <tbody> <tr> <td>어떤 감성으로 이런 작품을 표현하였는지 그림 각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td> <td>친구의 그림에 대하여 어떤 감성이 드는지 , 감성적인 것 같은지 기교적인 것 같은지 평가한다.</td> </tr> </tbody> </table>			자기평가	동료평가	어떤 감성으로 이런 작품을 표현하였는지 그림 각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친구의 그림에 대하여 어떤 감성이 드는지 , 감성적인 것 같은지 기교적인 것 같은지 평가한다.
자기평가	동료평가						
어떤 감성으로 이런 작품을 표현하였는지 그림 각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친구의 그림에 대하여 어떤 감성이 드는지 , 감성적인 것 같은지 기교적인 것 같은지 평가한다.						
<p>수업계획의 도</p>	<p>단순한 동양화 필선의 사의적 측면을 알도록 한다.</p> <p>단순 지식암기식의 미술교과학습에서 조금 벗어나 TV에 나오는 인기가수나 신인가수의 노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감상 포인트를 교사가 직접 이끌어 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적인 공감을 얻는다. 미술작품에 대하여 쉽게 이해함과 동시에 학습의 범주에서 벗어나와 마치 집에서 티비를 보며 즐기는 것과 같은 휴식을 주며 미술교과에 대하여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또한 음악 감상과 함께 자유로운 감정을 쏟아내면서 미술을 더욱 쉽게 느끼고 즐기고 향유하는 태도를 기른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small>K팝스타 서경덕의 '사랑하기 때문에'</small></p> <p><a href="http://tvcast.naver.com/v/622308">http://tvcast.naver.com/v/622308</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small>【전문아티스트】-twice T.T</small></p> <p><a href="http://tv.naver.com/v/1249010">http://tv.naver.com/v/1249010</a></p>  </div> </div> <p>(도 10) 가창법 비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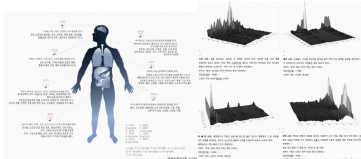
(도 11)남종문인화 수업 학생작 (고2 이현주 .2017)

④코고는 소리 녹음하기

일상의 소음이 예술 활동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코 고는 소리나 잡음을 녹음하도록 하는 수업이다. 코를 고는 소리를 재연하는 악기의 사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고, 직접 코고는 소리를 녹음한다. 이후 핸드폰에 각자 녹음한 음원을 하나의 컴퓨터로 전송한 다음, 음원을 편집하여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들어 볼 수 있다. 음원을 합쳐서 들어본 후에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개방적인 질문을 통하여 교사가 판서 할 수 있다. 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소음이 음원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리 효과음 관련 영상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수업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표 8) 코고는 소리 녹음하기수업

학습목표 및 내용			
교과/장소	성신	교사	김지윤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	교사활동	학생활동	유의점
총 50 분	1 차시		
동기유발 4 분	동기부여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영상을 제시한다.(코고는 소리, 일상속의 소음 등 영상을 제시한다.		

	 <p>(도 12)&lt;코고는 소리를 내는 악기 제작 사례&gt;</p> <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R0YTZ6IWzE">https://www.youtube.com/watch?v=OR0YTZ6IWzE</a></p>  <p>(도 13)(이학승.2008)- 음과 신체와의 관련성을 탐구한 드로잉이다.  (도 14)(이학승.2008) 소리_효능_드로잉.  각종 동물과 이미지와의 관계를 유추하였으며, 소리를 시각적으로 드로잉 했다. <a href="https://neolook.com/archives/20080212e">https://neolook.com/archives/20080212e</a></p>		
<b>수업목표</b> <b>2분</b>	인지-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소리들이 설치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심동-표현의 도구의 확장과 더불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정의-소리조형을 더욱 쉽고 편안한 씬의 공간으로 향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b>학습문제인식</b>	일상속의 소리와 씬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b>도입</b> <b>(4분)</b>	-간단한 인사로 수업을 시작한다. - 실제로 소음들을 모아서 작품을 제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인터넷 자료로 감상한다. -작품과 자료들의 감상을 끝내고 실제로 저런 작품을 제작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게 될지 미리 생각해보도록 질문을 제시한다.	- 일상의 소음이 미술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실제로 작품을 구상하여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다.	앞으로 하게 될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씬을 누리면서도 함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켜 말한다.
<b>전개 1</b> <b>(30분)</b>	-학생들에게 앞서서 잘 것을 요청한다. -코 앞에 핸	모두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 상태로 그 앞에 코를 붙이	큰소리로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작업의 방향성이

	<p>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두도록 한다. (잠이 안 오는 학생은 책을 읽어도 좋고 속삭여도 괜찮다.) 크게 떠드는 것은 녹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도록 한다.</p> <p>하품을 하거나 코고는 소리, 숨쉬는 소리 부스럭 거리는 소리들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p>	<p>고 잠에 든다.-속삭이며 떠들거나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녹음하는 학생도 있다.-자유롭게 쉼을 누린다.</p>	<p>달라지기 때문에 꼭 주의를 주고 이러한 과정이 단지 쉽이 아니라 작품 제작의 과정임을 알려준다.</p>
<p><b>전개 2</b> <b>(7분)</b></p>	<p>학생들을 모두 깨우고 녹음을 중지시킨다. 모두 핸드폰을 한곳에 모으고 학생들이 둘러싸여 녹음 파일을 모두 동시에 켜고 음원을 감상한다.</p> <p>-감상후에 코고는 소리가 합쳐져서 들리는 ‘음’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키는지 개방적 질문을 통해 의견을 칠판에 판서하고 그에 맞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 이미지와</p>	<p>녹음을 중지한다.</p> <p>선생님의 지시대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한곳에 모아두고 파일을 재생시킨다.</p> <p>-음원에 대한 감상을 하고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상상해 본다. 교사의 개방적 질문에 답하면서 구체적인 상상을 한다. 이미지를 찾아 소리와 함께 들어 본다.</p>	

	함께 음원을 감상한다.		
<b>평가 (3 분)</b>	학생들에게 감상하며 느낀 소감을 묻는다. -학생의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제각각 자신의 느낀 점을 종이에 쓴다. -발표하고 싶은 학생은 발표하도록 한다.	
<b>평가관점</b>	1.인지-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소리들이 설치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2.정의-미술을 더욱 쉽고 편안한 씬의 공간으로 누리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심동-예술표현의 도구의 확장과 더불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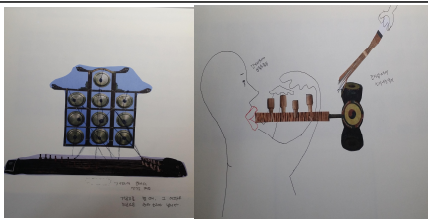
#### ⑤다양한 재료로 악기 만들기

익히 아는 모습의 악기(피아노, 플룻, 트럼펫, 각종 타악기)등의 모습을 벗어나서 색다른 재료로, 색다른 소리가 나는 악기를 제작함으로써 생태환경 소리조형에서 자연적 재료로써 악기를 만드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수업이다. 블록타임제를 적용하여 총 4차시로 구성되며 180분 수업이다. ④수업에서 코고는 소리 녹음하기 수업에서 일상생활의 소음이 악기의 소리로 연계, 응용될 수 있음을 인지한 학생들에게 심화단계로써 악기 만들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탐구하기 위한 실험, 탐구적 활동 수업이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동기유발을 위하여 교사는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인 수업분위기를 협동적이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는 악기를 교사가 먼저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보여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상의 소음(강아지 짖는 소리, 고양이 소리, 새소리, 음식 만드는 소리, 게임하는 소리, 비 오는 소리, 이불 터는 소리 등)을 떠올리도록 한 후에 그러한 소리를 재현 할 수 있는 악기를 제작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

(표 9) 다양한 재료로 악기 만들기 수업

학습목표 및 내용			
교과/장소	성신	교사	김지윤
4차시/(180분)	1,2차시 (90분)		
활동	교사활동	학생활동	유의점
동기유발 6분 (영상감상)	 <배수관악기 제작사례-유튜브>	 <바가지 악기 제작사례>	
	 <쓰레기통 연주>	 <자연의 소리 악기>	
	 <원리를 이용한 다빈치 실험>	 <블루맨그룹-생활용품연주>	
(도 14) 다양한 악기 영상 모음			
수업목표 차시예고 계획전달. 3분	인지-미술에서 소리를 활용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심동-작품을 구상하고 스케치 하는 작업을 통해 소리와 예술 활동을 실제 작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의-소리조형을 활용하여 협동하며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심동- 다양하고 새로운 악기를 제작 할 수 있다. 1.2.3.4 차시 1,2/3,4 차시로 나눠서, 앞차시에 인지정의적(교실수업)뒷차시에 심동적 수업(현장수업)을 예고한다.		
전개 6분	아이디어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지식 설명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 방법을 이해한다.	
협동학습 /총 75분			
초반활동 30분	활동지 제시. 팀별 활동을 통해 주변의 소음에 대	조별로 모여서 활동지에 다양한 소음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재료나 악기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더

	하여 활동지에 나열하도록 지도한다.-악기 사진, 잡지, 신문지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음을 묘사할 수 있는 악기를 상상하여 구상하도록 한다.	제시 한다.-제작할 악기를 상상해보고 풀라주 하거나 스케치한다.	욱 자유롭고 새로운 악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다.
<b>중간점검 10 분</b>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스케치에 대한 질문과 발표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모두 함께 나와서 아이디어에 대한 과정을 소개한다.	청각,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본다. 아이디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제작을 위한 조언 한다.
<b>후기보완 35 분</b>	학생들이 중간평가를 통해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고, 악기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물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조별로 다시 논의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재료를 분담하여 구하도록 역할을 서로 정한다.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재료는 피하도록 하고 그에 알맞을 만한 대체 재료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민하여 구하도록 노력한다. 재활용품이나 자연물을 활용하도록 한다.
<b>3,4 차시</b>			
<b>80 분 +평가 10 분</b>	교사 지도하에 실제 악기를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악기를 제작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준비물 준비, 장소 설정 등 교사와 논의하여 진행한다.



(도 15),(도 16)성신여대 대학원 예시작 1, 2



(도 17),(도 18)채소로 만든 악기 1, 2

<자연의 소리 악기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VNttzx\\_z\\_QE](https://www.youtube.com/watch?v=VNttzx_z_QE)

<p>수업고찰</p>	<p>본 지도안에서 예시작을 제안하기 위한 스케치 활동을 할 때에, 간편한 수업 준비를 위하여 전통 악기 사진을 프린팅 하여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아이디어 구상 시간은 단축되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실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기에 수월한 점이 있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재료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아이디어스케치를 풍부하게 이끌어 내기에 도움이 된다. 모래, 마른 풀, 지푸라기, 파도소리, 얼음, 물, 소금, 쌀, 곡물, 나뭇가지 등 소리가 날 수 있는 모든 자연물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아이디어를 더욱 풍성하게 돕기 위하여 태블릿pc 나 잡지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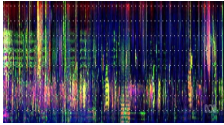
### 3)생태환경 소리조형 프로그램




청각미술수업과 생태환경 미술수업을 기초로 한 심화 프로그램이다. 블록타임을 적용하여 총 180분으로서 4차시에 해당한다. 생태환경 소리 조형프로그램은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다. 자연에서 얻은 ‘생태적 소음’과 ‘생태적 시각물’을 활용하여 조형적으로 설치하거나 구성하는 것이다. 생태환경 소리조형 수업은 앞의 생태환경미술, 청각미술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으로써 본 논문의 궁극적인 도달점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앞의 수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생태적 청각 요소를 더하거나 새로운 작업을 하도록 한다.

⑥ 생태적 소음의 시각적 생태조형과의 접목

앞서 제시한 생태환경 미술 작업(표 5), (표 6)에 생태적 청각 요소를 접목하는 활동을 하는 수업이다. 다양한 청각적 정보에 관한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청각적 정보에 대하여 다양하게 분석하고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

(표 10) 생태적 소음의 시각적 생태조형과의 접목 수업

학습목표 및 내용			
교과/장소		교사	김지윤
학습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총 4 차시	교사활동	학생활동	유의점
차시예고 (3 분)	(1-2 차시)		
차시예고 (3 분)	-간단한 인사로 수업을 시작한다. 1-2 차시 수업으로 총 2 시간 수업이다.-학급 반장에게 협동학습을 위한 조별 활동지를 배부하며 인원을 검토하도록 한다.	-교사의 인사에 반응한다.-차시에 따른 수업을 인지한다.-학급 반장은 학생들 인원을 점검하고 조별 활동을 위한 자리배치와 수업 전 정리정돈을 돕는다.	차시예고에 따른 수업의 긴장도를 촉발한다.
동영상 동기유발 중요성 인식. (14 분)	 (도 19) 자연의 소리를 그래프로 분석한 모습.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5_PJBgBLB8">https://www.youtube.com/watch?v=e5_PJBgBLB8</a> 영상을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소리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감각을 알 수 있다.	
학습문제 인식 수업목표 제시. (3 분)	인지-생태환경의 시각적 조형에 더하여 생태 환경적 소리를 적용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정의-자연적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심동-소리를 조형과 함께 활용하여 환경을 보호 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를 알 수 있다.		

<p><b>전개</b> (70 분)</p>	<p>조별협동학습 활동지 작성 지도한다. 생태환경 미술활동에서 했던 작업에 대하여 어울리는 자연의 소리에 대하여 토론 하도록 지도한다.</p>	<p>조별 협동학습지에 활동에 대한 방향 기록한다.</p>	
<p>(3-4 차시)</p>			
<p><b>90 분</b></p>	<p>1.주변 소리에 대한 예상해보고, 소리를 채집한다. 각각 채집한 소리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도록 지도한다.</p>	<p>1.주변 소리에 대한 예상해보고 소리를 채집한다. 채집한 소리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구성한다. 역할분배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듣는다. 교내, 근교에서 교사 지도하에 작업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도 20)<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TbA-mxo858">https://www.youtube.com/watch?v=uTbA-mxo858</a>  (도 21),(도 22)뉴욕 보테니컬 가든</p>			

(표 11) 활동지

활동지				
이름	조장-( )	학번	역할	활동 주제
1.				
2.				
3.				
4.				
5.				
6.				
1. 각각 생태환경의 소음을 채집하고 컴퓨터 소리,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음을 재구성하고 음원으로 제작하시오. 2. 시각적 조형물과 함께 음원을 재생하고 설치하시오.(과정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길 것 )				

⑦ 소리 환경 접목 수업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와 환경을 접목시켜 소리와 시각적 조형과의 어울림을 탐구 할 수 있다. 총 4차시로서 180분 수업이다. 크게 1,2차시 3,4차시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소리 풍경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동기부여와 문제의식을 촉발한다. 교내 소리 풍경을 녹화한 자료를 보여준다. 교내외 환경과 소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한다. 청각수업에서 제작하였던 악기를 제작하여 활용하거나, 새로운 소음을 채집 하는 등 조별 논의를 통해 결정한 활동을 통해 장소와 소리를 결정하고, 예상하여 활동지를 제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표 12) 소리 환경 접목 수업

학습목표 및 내용			
교과/장소		교사	김지윤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교사활동	학생활동	유의점
총 4 차시	1-2 차시		
동영상 동기유발 중요성 인식. (4 분)	1.화장실 ‘자연의 소리’ 영상 2.자연적 소리풍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청하도록 지도한다. 교내외 소리풍경 녹화	화장실 ‘자연의 소리’ 영상 자연적 소리풍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청한다.	교사차원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자료를 준비한다.

	자료 제시한다. 2. 생태환경 소리조형이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음을 알도록 지도한다.	교내외 소리풍경 녹화자료 감상한다. -쾌적함을 주는 조형적 측면에 대하여 고려한다.	
<b>차시예고 (3 분)</b>	-간단한 인사로 수업을 시작한다.1.2.3.4 차시를 1,2/3,4 차시로 나눠서, 앞차시에 인지정의적(교실수업)뒷차시에 심동적 수업(현장수업)을 예고한다. -반장에게 협동학습을 위한 조별 활동지를 배부하며 인원을 검토하도록 한다.	-교사의 인사에 반응한다.-차시에 따른 수업을 인지한다.-학급 반장은 학생들 인원을 점검하고 조별 활동을 위한 자리배치와 수업 전 정리정돈을 돕는다.	차시예고에 따른 수업의 긴장도를 촉발한다.
<b>수업목표 제시 (3 분)</b>	인지-생태 환경 소리조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정의-친환경적이며 조화로운 미를 추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심동-협동하여 생태환경 소리 조형을 구상하고 스케치하여 현장에서 완성 할 수 있다.		
<b>전개 (10 분)</b>	생태 환경 소리조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친환경적인 환경미술 작업과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공간특성에 맞는 소리를 수집하여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완성됩니다.)-교사의 예시작업 제시(ex.텅 빈 운동장을 채우는 나무 흔들리는 소리)	교사의 개념 설명을 듣고 생태환경 소리조형에 대해 이해하고 예시를 통해 전반적인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b>(70 분)</b>	활동지 제시. 활동지에 조별로 활동 장소와 제	-교사와 피드백을 통해 작품 구상을	

	<p>작 방식 , 작품의 의도 등 환경적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p> <p>-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작품 제작 결과에 대해 예상해 보고 피드백한다. (교내외 개선해야 할 풍경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어울리는 소리의 풍경을 예상하도록 한다.)</p>	<p>정교화 한다. 환경적 효과성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을 논의하고 활동 착수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교내외 개선해야 할 풍경을 선정하고 이에 어울리는 소리의 풍경을 예상한다.)</p>	
<b>심화(3-4 차시)</b>			
<b>80 분 전개</b>	<p>교사 허용 범위에서 제시된 공간을 활용하여 조별로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음원은 핸드폰을 활용하여 녹음하고 환경 속에 어우러지도록 하여 영상과 함께 제출하도록 지도한다.</p>	<p>교사 허용 범위에서 제시된 공간을 활용하여 조별로 작품을 제작한다. 음원은 핸드폰을 활용하여 녹음하고 환경 속에 어우러지도록 하여 영상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p>	
<b>마무리 10 분</b>	<p>각자 제출한 영상과 함께 음원을 함께 틀어서 감상하고 조별로 작품의 주제와 표현의도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 직업과의 관련성을 환기 한 후 수업을 마무리 한다.</p>		
	<p>‘사운드 스케이프’ 디자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수집을 통해 전달한다.(우리나라 활동사례)</p>	<p>이러한 조형활동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p>	
<b>수업계획 의도</b>	<p>1.자연을 활용하고, 자연환경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공간과 어울리는 조형물 제작, 자연을 영상으로 촬영. 2.자연을 돋보이게 하고 감상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음원 제작. (직접 채취한 녹음 파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이 되도록 한다.) 3.프로세</p>		

	스 폴리오 형식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아이디어에 중점을 둔 개방적인 수업을 이끈다.
<div data-bbox="277 427 852 593"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277 607 1082 636">(도 23), (도 24)&lt;비오는 날 비오는 소리&gt;, (도 25)&lt;변기와 자연의 소리&gt;</p> <p data-bbox="277 645 1305 1189">(예시작, 2018) 비오는 날 비오는 소리를 녹음하고, 맑은 하늘로 갠 날에 나무 흔들리는 소리를 녹음한다. 나무가 흔들리는 영상과 비가 내리는 영상 두가지를 이어지는 연속 영상으로 편집하여 작업하고 소리는 나무가 나올 때는 빗소리, 비가 떨어지는 영상이 나올 때는 나무 흔들리는 소리로 번갈아 작업한다. 맑은 날에 나무 근처에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빗소리와 나무를 함께 감상해 보기도 한다. 빗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나무를 감상하기도 한다. 음향이 자연의 시각적 효과와 어울려서 주는 효과를 탐구하고 자연을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시각과 소리가 어울려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탐구하고, 과정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로잉이나 글로 기록한다. 사진이나 영상자료 또한 제작한다.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한다.</p> <p data-bbox="277 1205 911 1234">&lt;변기와 자연의 소리&gt;이미지와 소리와의 관련성 느끼기.</p> <ol data-bbox="277 1243 986 1352" style="list-style-type: none"> <li>1.<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Oi_1S4vH64">https://www.youtube.com/watch?v=jOi_1S4vH64</a> (자연의 소리)</li> <li>2.<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V9moPAdXIg">https://www.youtube.com/watch?v=JV9moPAdXIg</a> (나무소리)</li> <li>3.<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4KTcdSms8RE">https://www.youtube.com/watch?v=4KTcdSms8RE</a>(빗소리)</li> </ol>	

블록타임제로 운영되는 수업에 대하여 적절한 수업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전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재구성 하였다. 계열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생태환경 소리조형이라는 하나의 단원을 향해 가는 연속적인 수업으로 구성했다. 자유학기제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대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각 따로 가르쳤었던 내용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활동으로 묶어서 최종적인 목표활동으로 도달하도록 했다. 관련 없어 보이는 청각적, 시각적 조형 활동수업을 통합하여 자연을 활용한 자유로운 표현의 기초적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추

구하여 자연적인 소재로 모든 구성물을 변경할 때, 자연에 대하여 관심을 환기 할 수 있고 자연이 주는 색다른 감수성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작은 수업들을 통하여 자신의 작업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고,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완벽한 작업 완성보다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협동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다.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활용한 느낌을 살려서 활동하는 중에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이 주는 따뜻한 안식의 감수성을 깨달을 수 있다.

## 2. 기대효과

기존 교과서에서 대지미술과 환경 생태미술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하여 미술작품보다는 영상과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시하여 생태환경을 활용한 예술 작품 보다는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활동으로 도달점을 좁히는 수업을 제안했다. 자연, 생태미술과 대지미술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실생활과 유리되어 흥미도가 떨어지고 문제의식이 없는 무조건적인 미술 창작 활동에서 벗어나서 미술을 환경과의 관련성에서 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생태미술에서 과정미술의 개념과, 사진과 영상의 활용에 따른 청각적 효과가 각각 다른 단원에서 다루고 있어 복합적인 사고과정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기존의 미술활동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촬영으로 과정을 기록 할 수 있고, 예술 활동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사진의 효과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다.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구체적인 사고의 맥락을 제시하지 않는 한계를 벗어나서 동기유발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고의 맥락을 협동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학생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며 사고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존 교과과정에서 청각미술 관련 단원에서 제시된 작품들은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을 불러내기에 수준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작품을 제안하고 교사가 감각적인 안목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에서 수업을 개선하여 미래사회의 역량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수업을 제안 하였다. 현대미술의 통합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청각미술을 심도 있게 가르치고 생태시각예술과 다른 활동으로 인지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다양한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 흩어져 있는 생태 환경적 시각, 청각, 소리 조형 의 분야를 생태환경 소리조형의 하나의 주제로 단원화 시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되는 시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시행과 함께 교사들이 타 교과와의 융합수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업 내용이 한정되고 수업시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지원하고 돕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미술활동을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감각을 깨우고 적응하며 미적인 오감을 향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IV. 결 론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감을 활용하여 감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서 형성할 수 있다. ‘전인교육’을 위하여, 과정중심 평가, 참교육의 배움 중심 평가, 협동학습, 체험학습, 프로젝트 학습법 등을 실행하였다. 자연을 통한 미적 감수성 역량 강화는 인지 정의 심동적 영역을 서로 구분 없이 활동으로써 제공할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탐험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생들 스스로가 느낀 것을 더욱 자유롭고 아름답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자연적 환경과 어울리는 소리와 시각적 정보를 파악하면서 공간적 감각을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다. 생태환경을 돕고 개선하고 보호하는 활동으로 도달점을 좁히는 수업으로써 환경과의 관련성에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에 대한 기회를 주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주는 협동학습을 통하여 갈등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는 수업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학생집단사회에서 진정성 있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감수성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무자비함에서 순수함을 되찾도록 할 수 있다. 정답이 없는 예술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활동을 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서 꼭 필요하게 여겨질 미래 직업의 한 분야인 예술분야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음악은 특히 ‘느낌’의 소리다. 언어가 아닌 음악은 의미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와 닿는다’는 의미에서 체험적이고 사실적이다. ‘소리’는 공간적 재배열을 통해 청중의 상상을 자극한다. 이러한 조형감각은 소리 환경 전체를 풍경으로 해석하여 시각적 풍경 이상으로 더욱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생태환경 감수성과 생태환경청각적 감수성을 활용한 수업은 자유학기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율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학업의 질을 높이고, 직업에 대한 접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활용하는 프로세스 폴리오 형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정답위주의 입시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따뜻한 배려의 원천으로서 꼭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교육에 적합한 과정중심 활동을 함으로써 결과중심의 편협한 성품을 기르기 보다는 협동하여 활동하고 허용적인 성품을 길러 낼 수 있다.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구성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의 맥락 탐구하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학생의 사고하는 과정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사고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작품을 제안하고 교사가 감각적인 안목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제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한다. 다양한 방면에서 수업을 개선하여 미래사회의 역량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수업을 제안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생태환경미술의 미술 문화적 배경으로써 대지미술,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등의 개념적 배경을 제시하고 퍼포먼스적 행위예술과의 관련성을 언급함으로써 수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또한 청각미술활동에서 현대작가의 작업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작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였다. 현대예술 사이트와 유튜브 영상 등에서 세계의 다양한 감수성을 알고 단순한 미술 학습 차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의미 있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제안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제안한 수업이 교내외의 환경을 아름답게 구성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한은주(2006), 우리나라 환경 소음 보존의 의의와 방향.
- 배강조(2002), 대지미술(Land art)의 성립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 박인수(2015), 내전의 트라우마와 치유를 주제로 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의 작품 연구(p74~76)
- 김향 외 4인(2006), 친환경 요소로서의 경관과 그에 어울리는 소리의 선택
- 고세영(2018),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수업 운영에 관한 질적 연구
- 마순자(2000), 「미술과 자연-생태미술」,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 조성숙(2015), 플로러닝을 활용한 생태미술 프로그램 연구
- 김성재(2007), 한국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풍물의 메시지.
- 성기완(2003), 『영화음악: 현실보다 깊은 소리』
- 김경아(2017), 자유학기 수업을 위한 PBL 기반 P3C 수업 모형 개발
- 서민지(2004), 아트 프로젝트를 적용한 음악 만들기 지도방안 연구
- 이재창(2016), 자유학기제의 철학적 기반 형성 가능성 탐색
- 신은주(2014), 미디어 아트 변환 포맷인 DIY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 권유진(2010),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미술과 지도 방안 연구
- 최종훈(2008), 인터랙티브 오디오비주얼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연구
- 양정숙(2000),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 미술교육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김연숙(2017), 경쟁사회와 감정의 작동방식-웹툰 <패션왕>에 나타난 청소년 문화를 중심으로
- 장정윤(2014), 생태소양의 관점에서 본 사회과 교육내용의 변천
- 현대의 예술과 미학, 2007. 5. 18., 서울대학교출판부
-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세계미술용어사전

두산백과

< 참고 사이트 >

1. 교육청 (2015)

2. 네오룩 <https://www.neolook.com/archives/20151012a>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5\\_PJBgBLB8](https://www.youtube.com/watch?v=e5_PJBgBLB8)

<https://www.youtube.com/watch?v=uTbA-mxo858>

## ABSTRACT

### A Study on 'Ecological Environment Sound Modeling' – Focusing on the fusion of auditory and visual arts –

Kim Ji Yun  
Fine Art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co-environmental sound lessons through the fusion of eco-environmental hearing classes and eco-environmental visual lesson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ddition, we aimed to improve the learn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tudents by providing appropriate classes for current curriculum through convergent teaching. In Chapter 1, the current curriculum,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described. In Chapter 2, art culture is divided into ecology-environment-art, auditory-art, ecology environment-sound-art,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explained. Chapter 3 explains the theory of postmodern-education and constructs a series of lessons based on it.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we merged the auditory art and the visual art to create a new unit called ecological environment sound design and planned two classes each. Chapter 4 It summarizes that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paper assists students' complex thinking by inducing activity in nature.